금수강산

3

주체106(2017)
루계 제331호 월간

 ISSN 1727-9062

전진하는 사회주의

2. 한마음 뭉쳐 못 넘은 산악이 없고
한뜻이 되여 못 이긴 광풍이 없네
언제나 당을 믿고 기적을 떨쳐온
일심의 대오속에 신념도 백배해
(후렴)

3. 주체의 당기 날리며 나가는 우리
사회주의의 강국을 일떠세우리
향도의 당이 펼친 찬란한 미래로
세대를 이어가며 곧바로 가리라
(후렴)

차 례

자립성과 주체성을 백방으로 강화하도록 이끄시여

우리 조국은 미국의 끊임없는 전쟁책동과 고립압살, 제재책동이 비렬하게 벌어지고있는 최악의 조건에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끊임없이 비약적인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어느 한 나라의 신문에는 이런 글이 실리였다.

《지구를 뒤흔드는 조선의 경이적인 성과는 이 나라야말로 그 누구도 굴복시킬수 없는 자주적대가 강한 나라라는것을 만천하에 과시하고있다. 난관과 시련이 중첩되는 조건에서도 조선이 자립으로 계속 승승장구하고 사회주의강국으로 세계의 자주력량을 선도해나가고있는것은 리해하기 힘든 신비가 아닐수 없다.》

우리 조국에 대해 특히 조국의 경제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외곡된 선전에 물젖은 사람이라면 조선의 참모습을 리해하기 어려울것이다.

우리 조국의 경제의 본질은 자립성과 주체성이다. 다시말하여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자립적민족경제이다.

이것은 해방후부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일관하게 구현하신 경제건설로선이다. 사실 해방후 공화국의 경제형편은 일제의 군사적강점의 후과와 그나마 미제에 의한 3년간의 전쟁으로 하여 모든것이 파괴되여 령상태나 다름이 없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키겠는가. 당시 대국주의자들은 경제적으로 뒤떨어지고 작은 나라인 조선에서는 농업이나 채취공업등의 유리한 부문만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 조국을 쎄브에 가입시켜 나라의 경제를 예속시키려고 하였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는 우리 땅에서 쇠돌을 캐여 쇠물을 뽑아 양수기도 만들고 농사도 제힘으로 지어먹으며 살아갈것이라고, 자력갱생이란 자기 힘으로 소생한다는것인데 그것이 무엇이 나쁜가, 우리는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것이라고 하시였다.

황해제철소(당시)를 복구할 때였다.

당시 대국주의자들은 저들의 그 어떤 부대조건하에서의 원조를 받아야만 한다고 하였고 그에 편승한 일부 사람들은 설계만이라도 외국에 의탁해서 해야 할뿐만아니라 외국에서 수많은 전문가를 데려와야 복구할수 있다고 하였으며 그것도 3년이 걸린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의 부당한 주장을 일축해버리시고 자체의 힘으로 하실 결심밑에 설계일군대렬을 꾸려주시는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에 따라 조국의 설계일군들이 자체의 힘으로 반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설계를 완성하고 복구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조국땅우에 첫 주체의 강철기둥을 세워놓을수 있었다. 그후 용광로대보수공사가 진행되는 속에 심각한 기술적문제가 제기되였을 때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는 우리 기술자들을 믿고 그들의 의견을 지지한다고, 우리는 제정신을 가지고 혁명을 해야 하며 과학기술의 높은 봉우리도 제 머리로 점령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하시며 조국의 기

자력자강의 기상 나래치는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술자들의 안을 지지해주시였다. 하여 제철소에서는 그들의 결심대로 용광로대보수를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빠른 기일에 쇠물을 뽑아낼수 있었다.

걸음걸음 부닥치는 시련과 난관을 박차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의 경제를 자립의 한길로 현명하게 령도하시였기에 조국땅에는 불과 3년만에 전쟁으로 페허가 된 경제가 복구된데 이어 4년만에 공업화의 기초가 다져지고 7년만에는 한마디로 단 14년만에는 사회주의공업화가 완성되는것과 같은 기적이 창조되게 되였으며 강력한 국방공업의 토대도 구축되게 되였다. 이 승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위의 국방공업도 중공업과 경공업, 농업 말하자면 경제전반과 함께 발전시킬데 대한 주체적병진로선을 내놓으시고 완강히 실현해나가신 결과에 이루어진 결실이기도 하였다.

우리 조국은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중공업과 경공업, 발전된 농촌경리의 우월성과 생활력이 높이 발휘되는 속에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힘있게 추진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 길에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계시였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물려주신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강화하는데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언제인가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느 한 예술단이 준비한 공연을 관람하게 되시였다. 공연무대에는 합창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가 울랐다. 노래가 고조되자 그이께서는 자립경제의 길을 헤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속에 조용히 눈가에 손수건을 가져가시였다. 이윽고 노래가 끝나자 그이께서는 다시한번 더 노래를 부르게 하시였다.

후날 그이께서는 그때를 감회깊이 추억하시며 우리 수령님처럼 나도 이 땅우에 강성국가를 일떠세우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였고 힘과 용기를 얻었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하기에 미제와 그 주구들이 사면팔방에서 달려들고 살아숨쉬는것마저 기적이라고 말하던 고난의 행군시기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신 그이께서 내리신 결심은 남의 기계를 사오는 식이 아니라 우리 식의 CNC기계공업을 발전시켜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킬 힘을 키우고 온 나라에 과학기술전, 첨단돌파전의 거세찬 열풍을 안아오는것이였다. 결심이 그러하였기에 피눈물을 삼키시며 나라의 얼마 안되는 자금을 CNC화에 돌리도록 대용단을 내리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그이의 령도밑에 조국에서는 짧은 기간에 CNC기술의 명맥을 확고히 틀어쥐고 최첨단고성능형CNC기계도 마음먹은대로 생산하는 기적이 창조되게 되였으며 그 불길속에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CNC화, 현대화가 적극 추진되고 지식경제에로 이행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를 맞이하게 되였다. 그리고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한 주체철, 주체비료, 주체비날론을 생산하고 100% 국산화된 인공지구위성들을 성과적으로 발사하며 공화국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만방에 과시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들과 심장의 대화를 나누시며 그분들의 령도업적이 깃든 수많은 단위들을 찾고찾으시여 자력자강의 높은 목표를 제시하여주시면서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 길로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에서 지하전동차를 자체의 힘으로 만들도록 이끌어주시고 지하전동차가 완성되였을 때에는 사회주의조선의 힘은 무한대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가슴이 후더워진다고 말씀하시였으며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찾으시여서는 현대화에서 특별히 마음에 드는것은 모든 생산공정들마다에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이 설계하고 우리 손으로 만든 첨단설비들을 그쯘히 갖추어놓은것이라고 하시면서 당(조선로동당)의 현대화방침에서 중핵을 이루는것은 국산화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원산구두공장을 찾으신 그이께서 모든 단위들에서 세계와 당당히 경쟁할수 있는 명제품, 명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자고 하신 열렬한 호소에 온 나라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이 떨쳐나서고있다.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가 있어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개척하시고 빛나게 령도하여오신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는 더욱 빛을 뿌리고 조국의 모습은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비상히 놀라운 속도로 전변되고있다.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더욱 강화해나가고 있는 조국의 모습은 자립경제를 건설해나갈 때 빈터우에서, 봉쇄와 압력속에서도 끄떡없이 승리적인 전진을 이룩해나갈수 있으며 그러자면 견결한 자주정신을 지닌 절세의 위인을 령도자로 모셔야 한다는것을 긍지높이 구가하고있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조선중앙통신

혁신의 불바람을 일으키고있는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든 지하전동차

일 화

경제강국건설의 길에서

주체철을 해야 한다

어느해인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콕스탄과 중유, 전기가 잘 보장되지 않아 철강재생산에서 지장을 받고있는 실태를 료해하시였다.

당시 우리 나라에서는 자체의 연료에 의한 철생산량이 그리 높지 못하였다. 특히 석탄수송을 제때에 해주지 못하다나니 금속공장들에서 애를 먹고있었다.

새로운 방법에 의한 철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석탄을 보장해주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 일군에게 새로운 철생산방법문제는 우리 나라 공업의 주체성을 보장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이며 그 장래운명에 관한 문제라고 말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아직 콕스탄을 캐내지 못하고있는 조건에서 금속공업의 주체성과 자립성을 확고히 보장하자면 결정적으로 우리 나라에 무진장한 무연탄을 연료로 하여 철을 생산하여야 한다. 더우기 지난날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쏘련과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세계사회주의시장이 없어진 새로운 환경은 우리의 금속공업을 확고히 주체성있게 발전시켜나갈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그이께서는 우리가 주체철을 많이 생산하면 강철생산을 정상화할수 있으며 대외시장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의 금속공업을 계속 안전하게 발전시켜나갈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오래전부터 주체철에 의한 새로운 철생산방법을 적극 받아들일데 대하여 강조하고있는것이라고 이르시였다.

그러시고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 우리 나라의 연료에 의거한 새 제철법을 완성하여 주체화된 금속공업을 후대들에게 넘겨주어야 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처럼 념원하시던 금속

공업의 주체화를 마침내 위대한 장군님께서 현실로 꽃피워주시였다.

요술의 환상세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주체100(2011)년 1월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연혁소개실과 첨단설비들이 그쯘히 갖추어진 여러 연구실들을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과학연구성과전시관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첨단설비를 리용하여 생물공학의 핵심기술인 유전자분석에 의한 주요전염병진단기술개발과 이 기술을 리용하여 이룩한 성과들, 분원에서 개발한 감자비루스검사시약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분원에서 연구하고 생산에 도입한 환상덱스트린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아주시였다.

환상덱스트린은 포도당 7개 분자가 고리형으로 결합된 물질을 말하는데 페니실린을 비롯한 약들과 섞으면 그 약물효과를 훨씬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이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매우 흥미있다고, 과학자들이 요술사들 같다고 하시였다.

이어 분원의 연구집단이 줄기세포의 분리배양 및 이식 등을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완성한데 대하여서도 높이 평가하신 그이께서는 생물공학분원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이룩한 성과와 경험은 과학기술을 경제강국건설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우리 당(조선로동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뚜렷한 과시로 된다고 하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분원에서 내놓은 착상안들도 구체적으로 보아주시였다.

사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나라에 들여다 시험재배하고있는 사탕갈의 유전적형질을 변화시키기 위한 착상과 농마함량이 높은 새로운 감자품종을 육종하기 위한 착상, 새로운 인슐린생산방법과 관련한 착상, 조직배양기술에 의한 기둥형사과나무접가지나무모생산과 관련한 착상, 물고기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착상…

사실 그것들은 과학기술발전에서 아직 자그마한 싹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정말 요술의 환상세계라고, 연구집단이 가치있는 착상안들을 내놓았다고 치하하시면서 이 분원은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며 경제강국을 건설하는데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속옷과 겉옷이 모두 우리것

주체101(2012)년 9월 어느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대동강타일공장(당시)을 돌아보시였다.

공장의 종업원들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일떠세운 2단계생산공정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1단계생산공정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공장일군들이 그이를 모시고 바닥타일직장에 도착하였을 때 바닥타일흐름선에서는 여러가지 타일들이 줄줄이 생산되여나오고있었다.

그 광경을 만족스럽게 지켜보시는 그이께 공장일군이 바닥타일흐름선에서 바닥타일뿐아니라 자기기와도 만들수 있도록 흐름선을 다기능화하였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리고 내벽타일흐름선을 가리켜드리며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고 공장종업원들이 창전거리와 만수대거리, 릉라인민유원지 등 중요대상건설장들에 타일제품들을 많이 보내주었다고 덧붙여 보고드리였다.

일군의 보고를 주의깊게 들어주신 그이께서는 대동강타일공장에서 생산한 타일을 창전거리건설장과 릉라인민유원지건설장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장들에 많이 보내주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마음먹은대로 설계하고 일떠세운 건물들에 우리가 만든 타일을 붙일수 있게 되였으니 얼마나 긍지가 있는가고, 사람들이 입는 옷에 비유하면 속옷과 겉옷이 모두 우리것이 된셈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속옷과 겉옷이 모두 우리것!

그이의 이 말씀에는 자력갱생에 참된 애국의 길이 있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었다.

본사기자

나라가 흥하는 길

흥하는 나라를 건설하는것은 매개 나라와 민족이 가지고있는 한결같은 소망이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라의 부흥번영은 정치와 군사, 문화와 같은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들의 발전과 함께 주체적이며 자립적인 민족경제에 토대한 튼튼한 국가경제력에 의해 담보될 때 이루어지게 된다.

주체적이며 자립적인 민족경제란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경제를 말한다. 다시말하여 자기 힘에 의거하여 자기식으로 건설하는 경제, 남에게 예속되거나 남의 도움에 의존하지 않고 제발로 걸어나가는 경제를 주체적이며 자립적인 민족경제라고 한다.

경제건설에서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것은 부강조국건설의 필수적요구이다. 혁명과 건설이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고 나라살림살이도 매개 나라 인민자신이 책임지고 꾸려나가야 하는 현시대에 모든 나라들은 반드시 자체의 힘으로 살아갈수 있는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한다.

조국은 해방후 새 조국건설의 첫 시기부터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을 지향하면서 주체적이며 자립적인 민족경제를 건설하는데 커다란 힘을 넣어왔다.

자기의 힘과 자기 나라의 자원에 의거하여 일제가 남겨놓은 경제의 식민지적편파성을 없애면서 새 조국건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닦아놓은 조국인민들이다.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어려운 시기 대국주의자들이 우리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며 쎄브에 들것을 강요하고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각방으로 반대해나설 때에도 조국은 자주적립장을 일관하게 견지하며 천리마를 탄 기세로 힘차게 내달려 남들이 걸어온 공업화의 수백년력사를 단 14년으로 주름잡아 사회주의공업화를 완성하였다. 하여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자체의 중공업과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경공업, 발전된 농촌경리를 가진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토대를 마련해놓았다.

1980년대에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가 힘있게 추진되여 현대적이고 다방면적이며 종합적인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더욱 공고히 다지였다.

조국은 그처럼 어렵고 심각하였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자주적대를 더욱 굳게 세우면서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자립경제의 우월성을 굳건히 다져왔으며 그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속에서 민족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이 강화되고 CNC화, 현대화가 적극 추진되여 지식경제에로 이행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지난날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은 이전 쏘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나라들의 경제협동체인 쎄브에 경제적으로 매여 로선과 정책 하나 독자적으로 세우지 못하였으며 나중에는 나라의 경제를 파국의 위기에 몰아넣지 않으면 안되였다.

력사적경험은 남에게 예속된 경제는 제발로 걸어나갈수 없으며 경제의 발전은 고사하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까지도 망쳐먹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지금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침략전쟁책동과 《인권》모략소동을 벌리면서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의 도수를 더욱 높이고있다. 그러나 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토대가 마련되여있기에 조국은 무엇이든 마음먹은대로 척척 만들어내고있으며 경제강국을 힘차게 건설하고있다.

오늘 조국에서는 주체철, 주체비료, 주체비날론이 쏟아지고 우리가 만든 위성과 비행기, 지하전동차와 고기배들이 하늘을 날고 땅속을 달리며 바다에서 만선기를 날리고있으며 곳곳에서 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는 눈부신 현실이 펼쳐지고있다. 라선과 함북도 북부피해지역에서 이룩된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들도 주체적인 자립적민족경제를 떠나서 결코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제재몽둥이를 휘두르며 조국을 질식시키고 압살해보려고 날뛰여도 주체적인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우에서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만리마속도를 창조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군대와 인민의 도도한 전진은 막을수 없다.

력사와 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 바로 여기에 나라와 민족이 흥하는 길이 있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심청룡

경제강국건설과 과학기술

경제는 국력을 담보하는 물질적기초이며 경제강국은 사회주의강국의 중요한 징표이다. 국가경제력의 발전은 나라의 정치사상적위력과 군사적위력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조국이 내세운 사회주의경제강국은 자립성과 주체성이 강할뿐아니라 과학기술을 기본생산력으로 하여 발전하는 나라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경제강국은 자립성과 주체성이 강할뿐아니라 과학기술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다. 오늘날 과학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지식은 생산력을 대표하고있으며 경제장성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따라서 조국이 건설하는 경제강국은 과학기술과 생산이 일체화되고 첨단기술산업이 경제장성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는 지식경제강국을 말한다.

지식경제는 과학연구와 기술개발을 기초로 하는 경제, 정보화에 의거하고 정보고속도로를 하부구조로 하는 경제, 첨단기술산업을 기둥으로 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경제일뿐아니라 학습형의 경제라는데 로동력경제, 자원경제와 다른 특징이 있다.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쳐 나라의 경제를 지식경제로 전환시킴으로써 과학기술을 기본생산력으로 하여 끊임없이 발전하는 나라가 바로 사회주의경제강국인것이다.

과학기술중시는 조선로동당의 전략적로선이다. 조선로동당은 일찍부터 사상중시, 총대중시와 함께 과학기술중시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3대기둥으로 내세우고 과학기술분야에서 첨단을 돌파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왔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경제봉쇄책동속에서도 조국은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을 지펴올리고 지식경제강국건설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지식경제강국건설의 나날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다.

신미리애국렬사릉에는 사람들이 그앞에서 선뜻 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묘비가 있다. 그것은 과학자영웅들인 리재섭, 리선호의 묘비이다. **김일성**상계관인이며 인민과학자 원사 교수 박사인 리재섭은 첫 인공지구위성의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공헌한 우리 나라 우주과학분야의 첫 세대 대표자이다. 그런가 하면 벌써 30대초에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았고 과학분야에 쌓은 공적으로 하여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받은 2중영웅 리선호 역시 여러차례의 인공지구위성발사성공에 기여한 실력있는 과학자였다.

조국의 품속에서 영생의 언덕에 함께 오른 이들은 아버지와 아들이다.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부강번영을 위해 아버지가 한생토록 걸은 길을 아들이 대를 이어 걸으며 피끓는 심장을 아낌없이 바친 불덩이같은 이런 애국적인 과학자들이 있어 우리 식의 CNC 기계바다가 펼쳐지고 주체위성이 대지를 박차고 련이어 솟구쳐올랐으며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지식경제시대의 본보기공장, 표준공장들이 일떠서고있는것이다.

국가과학원 정보과학기술연구소의 연구집단이 우리 식의 프로그람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목표를 내세웠을 때 그들은 이 기술의 개발을 위해 어느 한 나라에서 수많은 전문력량을 인입하여 몇년동안 무진 애를 쓰고있으나 결실을 보지 못하고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남들이 못한다고 우리도 못하겠는가, 조선의 과학자들의 본때를 보이자는 담력과 배짱을 안고 산더미같은 기술문헌자료들을 연구하며 걸음걸음 상상을 초월하는 난관과 실패의 나날을 걸어왔다. 그 나날 그들의 가슴속에서 고패친것은 나아가다 쓰러질 길은 있어도 뒤걸음칠 길은 없다는것이였다. 이런 결사의 각오와 의지로 하루에 1~2시간씩 자면서 그야말로 돌파전을 벌려 그들은 분산형조종설비인 《미래 102》를 기어이 개발해내고야말았다.

그들이 걸어온 자욱자욱은 바로 당정책은 과학이고 진리이며 과학기술을 떠난 경제강국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하기에 오늘 조국의 과학자들은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쳐 나라의 경제를 지식경제로 전환시키며 나라의 경제발전을 인민들이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는데로 지향시켜나가고있다.

조국땅에 펼쳐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과학기술로 경제강국을 건설하려는 조국의 의도는 짧은 기간안에 반드시 현실로 꽃펴날것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한신애

5개년전략수행을 위한 전민총돌격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새해 주체106(2017)년을 맞으며 하신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기 위해서는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전민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 수행을 위한 부문별과업들을 제시해주시였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내놓으신 경제발전전략이다. 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목표는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부문사이 균형을 보장하며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것이다.

지난해에 온 나라 인민들은 70일전투와 200일전투를 벌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첫해목표를 빛나게 수행하였다. 올해는 그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5개년전략수행의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고 나라의 경제전반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올려세워야 하는것이다.

그 수행을 위한 부문별과업에서는 우선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우는것이다. 그를 위해 과학기술부문에서 원료, 연료, 설비의 국산화에 중심을 두고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와 생산정상화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 선차적힘을 넣으며 생산단위와 과학연구기관들사이의 협동을 강화해나가는것을 중요하게 제기하였다. 뿐만아니라 공장, 기업소들에서 자체의 기술개발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 생산확대와 경영관리개선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내놓아 경제발전을 추동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또한 인민경제의 중요부문들인 전력과 금속, 화학공업부문이 경제발전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갈것을 제기하였다.

거기에는 전력공업부문에서 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면서 생산과 소비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다양한 동력자원을 개발해나가며 금속공업부문에서는 선진기술을 받아들여 철생산원가를 낮추는 한편 주체화된 생산공정들의 운영을 정상화하여 철강재를 더 많이 생산하며 화학공업부문에서는 생산을 활성화하고 화학공업의 주체화를 보다 다그치는 문제가 내용으로 담겨져있다.

또한 석탄공업과 철도운수부문에서 발전소와 금속, 화학공장들의 석탄과 수송수요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며 기계공업부문의 공장들에서 현대화를 다그치고 새형의 뜨락또르와 륜전기재, 다용도화된 농기계들의 계렬생산공정을 완비하고 여러가지 기계설비들을 생산보장하며 경공업과 농업, 수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인민생활향상에서 보다 큰 전진을 이룩하며 건설부문에서는 려명거리건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고 중요대상건설에 력량을 집중하면서 교육문화시설들과 살림집들을 더 많이 훌륭히 일떠세울데 대하여 제기하였다.

과업에서는 또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최대한 증산하고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국토관리사업에 온 나라가 떨쳐나설데 대하여 제기하였다.

지금 조국의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은 곧 승리와 영광의 길이라는 억척불변의 신념을 안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 위한 진군길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다.

그 길에는 난관과 시련이 수없이 가로놓여있다. 특히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경제《제재》와 《봉쇄》책동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고있다. 하지만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제재》소동도 결코 조국의 군대와 인민을 놀래우지 못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제국주의자들의 《제재》속에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행복한 생활을 창조해왔다. 그 과정에 자기 힘이 제일이고 자강력이 제일이라는것을 체질화한 조국의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자!》는 전투적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5개년전략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전민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리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는 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 위한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투쟁은 반드시 승리적전진을 이룩할것이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김경진

주체철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황철의 로동계급

주체철생산자들은 말한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우리의 원료와 연료에 의거한 주체철이 더욱 장쾌하게 쏟아지고있다.

천수백℃의 쇳물을 품고 용을 쓰는 용광로, 연방 흘러나오는 주체철, 꽃보라마냥 수천수만갈래로 튀여오르는 불꽃들과 용해공들의 환희에 넘친 모습…

우리와 만난 용광로직장 책임기사 전철민은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일떠세운 용광로에서 우리의 원료, 연료로 철을 팡팡 생산하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산소열법용광로는 북부와 서부의 철광석을 가림없이 그것도 소결광생산과 같은 처리공정이 없이 다 먹을수 있다. 그리고 련속장입, 련속출선하게 되여있고 로보수기일이 짧으며 가열된 랭각수를 리용하여 수천㎾의 전기까지 생산하고있다.》고 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금속공업의 주체화실현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생의 념원이였고 뜻이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심장에 새겨안은 황철의 로동계급은 기어이 산소열법용광로에서 선철을 생산하기 위하여 그 투쟁에 떨쳐나섰다.

산소열법용광로건설과정은 하나부터 백까지 모든것을 우리 식으로 새롭게 창조하며 빠른 시일안에 해야 하는 초행길이였다. 배울데도 배워주는 사람도 경험도 없었다. 오직 믿을것은 자기의 힘과 기술밖에 없었다.

기업소에서는 주체철생산체계확립을 위한 지휘부를 조직하고 대상별에 따르는 공사과제를 다그쳐 끝내도록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이에 기초하여 기업소에서는 대형산소분리기총조립공사와 종전용광로의 로체해체 및 로제작설치공사, 원료공급계통, 용수계통들을 완성하기 위한 전투를 벌리였다. 그리고 공기압축기설치와 변전소개건, 보이라, 발전기설치를 비롯한 어렵고 방대한 공사를 립체적으로 내밀었다.

로력과 자재보장이 따라서고 전반적인 공사가 힘있게 추진됨에 따라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기업소의 일군들은 각 분야의 실력이 우수한 기술자들로 핵심기술력량을 묶고 그들이 주동이 되여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가도록 하였다.

산소열법용광로건설이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서던 시기였다. 일부 사람들은 현행건설도 힘겨운데 어떻게 PLC조종체계까지 갖춘 현대적인 산소열법용광로를 건설하겠는가고 우려하였다.

산소열법용광로건설은 공사량만 해도 방대한데 현대화까지 하자니 말처럼 쉽지 않았다. 하지만 기업소의 기술자들과 로동계급은 우리 식으로 철을 생산한다는 그자체에만 국한된것이 아니라 보다 높은 과학기술적경지에 올라서 세계와 당당히 겨루겠다는 자신만만한 배짱으로 달라붙었다.

기술자들은 사색과 탐구로 새날을 맞고 보냈으며 로동자들은 용접불꽃날리는 현장에서, 제관품조립과 천수백종의 가공품을 생산하는 현장에서 침식을 이어나갔다. 그 나날 그들의 심장을 불태운것은 하나를 창조해도 높은 수준에서 세계와 겨루겠다는 자력자강의 정신이였다.

그 정신을 지닌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면서 6개월이 걸려야 한다던 대형산소분리기최종조립을 한달동안에 끝내고 시운전에서 단번성공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동시에 용광로와 주파수변환기실을 비롯한 여러 공사건설과제를 기한전에 끝내고 자체의 힘과 기술로 공기려과기를 만들어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하여 주체104(2015)년 11월 마침내 용광로에서 첫 주체철을 뽑아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기업소 지배인 김충걸은 말하였다.

《우리 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산소열법용광로를 세우는 과정을 통하여 자력자강이 제일이라는것을 다시한번 깊이 체험하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철생산을 다그쳐 자립의 강철기둥을 굳건히 다지겠다.》

지금 황철의 로동계급은 자력자강의 힘으로 산소열제철법을 완전성공시킨 긍지를 안고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된 과업관철을 위한 철강재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글 본사기자 전룡진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자기 힘으로 일떠선 수산사업소

조국의 서해안에는 크지 않은 남포대경수산사업소가 있다. 5년전까지만 해도 주저앉을번 했던 수산사업소이다. 하지만 지금은 서해안적으로 물고기생산실적이 제일 높은 단위로 손꼽히고있으며 자체의 힘으로 《단풍》호계렬의 만능어선뿐아니라 서해에서 처음으로 봉사선단까지 무어내여 운영하는 전형단위로 만사람의 경탄을 자아내고있다. 사실 뒤떨어진 사업소를 일떠세울 당시까지만 해도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이런 큰 생각까지는 못하였다고 한다.

어떻게 하나 사업소를 추켜세울 생각을 거듭하던 그들은 먼저 지난 시기 수산부문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부터 학습하였다. 거기에는 수산사업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방도들이 구체적으로 새겨져있었다.

자력자강! 바로 그것이였다. 그 길만이 우리가 일떠서는 길이라는것을 자각한 종업원들이 두주먹을 부르쥐였다. 특히 지배인 박승일의 심장은 보다 세차게 끓었다. 그의 머리속에서는 벌써 자체의 힘으로 사업소에 후방기지와 랭동고, 수산물가공공장 등을 건설할 착상이 서고 고기배는 물론 봉사선까지 무어낼 의지가 맥박쳤다.

사실 결심하기는 쉬워도 실천하기는 힘든것이다. 하지만 그는 드센 배짱과 완강한 실천력으로 종업원들을 불러일으켰다. 처음 남새온실과 버섯생산기지, 합숙, 자체탄광이 서고 그것들이 은을 내는 속에 능력이 큰 랭동고와 배올림대 건설이 힘있게 추진되였다.

힘겨운 투쟁의 나날이였지만 종업원들은 악전고투하며 뼈심을 들여 이룩한 창조물들을 보며 자력자강의 힘이 제일이라는 신심을 더욱 높이 가지게 되였고 그 과정에 담도 더 커지고 배짱도 자라나게 되였다. 그것은 그대로 수산물생산실적으로 이어졌다. 그들은 스스로 물고기잡이계획을 높이 세우고 그것을 수행한 다음에는 그 기준에서 또다시 더 높은 기준을 세우고 돌파해나갔다. 이렇게 하자니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것은 고기배였다. 그들은 대담하게 배무이를 자체로 할것을 결심하고 여기에 진입하였다.

그때 설계로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술적문제들이 제기되고 또 작은 수산사업소에서 배를 무을수 있는가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주저를 몰랐다. 하여 그들은 배무이에 진입한지 얼마 안되여 첫 《단풍》호계렬의 만능어선을 뭇는데 성공할수 있었으며 성과를 확대하여 한두해동안에 련이어 10여척이나 무어내는 기적을 창조하게 되였다.

실천은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완강한 개척정신의 소유자, 기적의 창조자들로 완성시켜주었다. 당시 남들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어벌이 큰일인 고기배무이는 물론 종합적인 봉사선단까지 무어낼 결심을 하고 완강히 실천한것만 보아도 그러하다. 종합적인 급양편의 및 의료봉사시설과 배수리설비를 갖춘 배와 연유와 음료수를 실어나를수 있고 잡은 물고기를 초급동할수 있는 배 그리고 만능어선, 긴급구조정으로 구성된 봉사선단무이는 매우 아름찬 과제였다. 하지만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할수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기에 앞서 무조건 해야 한다는 하나의 일념을 안고 봉사선단무이전투에 돌입하였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착상과 제안들이 집체적지혜와 토의로 완성되고 선진적인 배무이공법들이 쏟아져나왔다. 그런가 하면 배무이작업장에서는 용접과 연마, 도장이 립체적으로 벌어져 시간이 다르게 놀라운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물론 이 과정에는 힘에 부쳐 주저앉은 사람도 있었고 난관앞에 동요

축양장에서

배무이도 자체의 힘과 기술로

하던 사람도 있었지만 용암처럼 들끓는 집단속에서 그들모두가 다시금 일떠서며 작업장을 떠난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

그들은 이렇게 헌신적인 투쟁과 완강한 실천력으로 서해에서 처음으로 되는 봉사선단을 내놓을수 있었다. 지금 리발, 목욕, 한증, 문화오락시설등이 훌륭히 갖추어져있는 봉사선 《문명-1》호에서 봉사받은 어로공들은 자력자강의 정신력으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할 때 사업소가 일떠서고 자기들의 보람찬 생활이 꽃펴난다는것을 확신하며 앞으로도 그것을 생명으로 틀어쥐고나갈것이라고 이야기하고있다.

자력으로 건조한 종합봉사선에서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조선혁명군

(전호에 계속)

리제우네 소조력량은 1930년대에 들어와 수십명으로 늘어났다. 그들의 노력에 의해 장백땅에서는 반일조직들이 련이어 태여나고 마을마다 학교와 야학이 생기고 웅변대회, 연예공연, 체육대회 같은것이 자주 벌어져 사람들을 혁명적열정으로 끓게 하였다.

일제는 이런 때에 마적단으로 가장한 무장단을 들이밀어 조선인부락을 하나 털어내는 연극을 꾸며가지고 리제우네를 유인해냈다. 그러나 사전에 우리가 마적단을 주의하라고 경고해주었기때문에 그들은 놈들의 꾀임에 말려들어가지 않았다. 크지 않은 싱갱이가 벌어져 얼마간의 부상자를 냈을뿐 사건은 전면적인 전투로까지 확대되지 않았다.

그후 리제우네 무장성원들은 일제의 마적단과 결탁된 반동군벌군대의 불의적인 습격을 받고 큰 피해를 입었다. 박진영은 전투현장에서 장렬한 최후를 마치고 리제우는 불행하게도 체포되였다.

리제우는 이 수치를 죽음으로 씻으려고 손발을 묶이운 상태에서도 식칼로 목을 찔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는 현장에서 일본경찰들의 손에 넘어갔으며 서울에 압송된 후 사형언도를 받고 옥중에서 인차 희생되였다. 공영은 만주지방의 반일운동자들을 유인랍치하려고 일제가 조작한 가짜 공산주의자들과 통일전선을 하려다가 살해되였다.

우리가 공영, 리제우, 박진영동무들의 비극적인 최후에 대한 소식에 접한것은 단천에서 농민들의 대중적인 폭동이 있은 직후였다. 련락원의 말을 들은 나는 한동안 마음을 수습하기 어려웠다. 무엇보다도 아버지에게 불효막심한 죄를 진것 같아 머리를 들수 없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던 독립군대원들로서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의 방향전환을 맨 처음으로 실현한 사람들이였다.

리제우, 공영, 박진영의 비극적인 최후를 내가 그렇게도 가슴아파한것은 카륜회의결정을 집행할 유력한 국내공작소조 하나가 없어진데도 있었지만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싸우던 방향전환의 선구자들을 억울하게 잃어버렸기때문이였다.

공영과 박진영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상여도 제일 앞에서 멘 사람들이였다. 그들은 우리 어머니에게 몽상도 자기들이 입겠으니 나에게는 입히지 말라고 하였다. 열네살밖에 안된 내가 몽상을 입으면 애처롭게 보일것 같아서 그런 말을 했을것이다. 그때부터 그 두사람은 3년동안 베감투를 쓰고 몽상을 입었다.

그 당시 독립군훈련소는 무송시가에서부터 좀 떨어진 말리허라는 곳에 있었다. 공영은 한주일에 한두번씩 지게에 나무짐을 지고 우리 집에 찾아와 어머니에게 문안을 드리였다. 그의 안해도 두릅이나 참나물 같은 산나물을 해가지고 우리 집에 자주 찾아왔다. 때로는 공영이 쌀자루를 메고 올 때도 있었는데 그런 성의가 우리 집 살림에 적지 않은 보탬을 주었다.

어머니도 그들을 만나면 친동생처럼 허물없이 대해주었다. 어떤 때에는 친누이와 같은 위엄을 가지고 그들의 잘못을 따끔히 타일러주기도 하였다.

공영이 독립운동을 하느라고 만주로 들어온 후 그의 안해는 벽동에서 별거생활을 하였다. 그러다가 어느해인가 남편을 찾아 무송으로 들어왔다. 공영은 그때 제비국을 끓이다가 덴 안해의 화상자리를 보고 얼굴이 보기 싫게 되였다고 하면서 시쁘둥해가지고 같이 살지 않겠다고 하였다.

우리 어머니는 성이 나서 그를 막 꾸짖었다.

《임자, 그게 제 정신을 가지고 하는 소린가. 남편을 만나보겠다고 불원천리 찾아온 안해를 금방석에 앉히지는 못할망정 같이 살지 않겠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망녕된 생각인가.》

공영이란 사람이 원래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은 늘 진지하게 받아들이였다. 그날도 그는 우리 어머니에게 절을 하고나서 잘못하였다고 사죄하였다.

내가 국내에 들어간 형권삼촌네 무장소조의 활동소식을 제일 처음으로 접한것은 신문지상을 통해서였다. 할빈에 있을 때인지 어디에 있을 때인지 똑똑히 기억되지 않으나 동무들이 흥분해서 들고 온 신문을 보니 풍산땅에 4명의 무장단이 나타나 순사부장을 쏴제낀 후 북청에서 넘어오는 자동차를 빼아타고 후치령으로 사라졌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려있었다.

신문을 가져온 동무는 국내에서 총성이 울린것이 통쾌하다고 입을 다물지 못했지만 나는 오히려 그 총성때문에 불안을 금할수 없었다. 어떻게 되여 국내진출의 초입이라고 할수 있는 풍산에서 총성을 냈는가?

나는 그때 삼촌의 불같은 성미를 새삼스럽게 생각하였다. 어쩐지 삼촌이 그 불같은 성미를 걷잡지 못하고 총소리를 낸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원래 우리 삼촌은 어려서부터 바람벽도 문이라고 차고나가는 남아다운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

형권삼촌 하면 먼저 타개죽사발에 대한 일화가 생각난다. 내가 만경대에 있을적 일이니 삼촌의 그때 나이가 아마 열한살 아니면 열두살쯤 되였을것이다.

그때 우리 집에서는 저녁마다 수수타개죽을 먹었다. 수수타개죽이란 수수를 껍질채로 망에 갈아서 끓인것인데 맛도 없었지만 제일 고통스러운것은 삼킬 때마다 수수껍데기가 목구멍을 따끔따끔 찌르는것이였다. 나도 타개죽은 질색이였다.

그런데 하루는 형권삼촌이 밥상앞에 마주앉았다가 할머니가 갖다놓은 뜨거운 타개죽사발을 이마로 받아넘겨 엎질러놓았다. 어떻게나 세게 받아넘겼던지 죽사발은 봉당에 날아가 떨어지고 삼촌의 이마에는 상처가 나서 피가 흘렀다. 아직 철이 다 들지 않은 때이니 죽으로 끼니를 잇지 않으면 안되는 가난에 화가 나서 타개죽사발에 분풀이를 한것이다.

할머니는 《네가 밥타발하는걸 보니 사람구실을 하기 글렀다.》고 하면서 삼촌을 보고 되게 욕하였지만 뒤에 돌아앉아서는 눈물을 지었다.

형권삼촌은 철이 들면서 이마의 허물자리에 신경을 썼는데 중국에 들어와 우리 집에서 생활할 때에는 앞머리를 좀 길러가지고 그 허물자리를 가리우고 다니였다.

형권삼촌이 중국에 들어온것은 우리가 림강에서 살 때였다. 아버지가 삼촌을 우리 집에 와있게 한것은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였다. 아버지가 교육자이기때문에 삼촌이 우리 집에 와있으면 학교에 가지 않고서도 중학과정안까지는 뗄수 있었다. 장차로는 삼촌을 혁명가로 키우자는것이였다.

아버지가 생존해계실 때까지는 형권삼촌이 우리 아버지의 영향과 통제를 받으면서 비교적 건전하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다음부터는 자기를 걷잡지 못하고 마음내키는대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이마로 타개죽사발을 받아넘기던 어린시절의 성미가 그대로 되살아나 우리들을 아연케 하였다. 형권삼촌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자 집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림강이요, 심양이요, 대련이요 하면서 사방으로 떠돌아다니였다.

우리 가정내막을 좀 알고있는 사람들은 삼촌이 고향에 가서 부모들이 정해준 녀자하고 약혼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약혼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들떠다닌다고 하였다.

물론 그것도 리유라고 할수는 있었다. 그러나 삼촌이 들뜨게 된 중요한 원인은 우리 아버지의 서거에서 받은 절망과 비분을 묵새기지 못하였기때문이였다.

내가 화성의숙을 중퇴하고 집에 돌아가니 삼촌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술에 취한 사람처럼 들뜬 생활을 계속하고있었다. 그때 가정은 어머니의 삯빨래와 삯바느질로 생기는 보잘것없는 수입에 의하여 겨우 유지되는 참으로 어려운 형편이였다. 우리 가정형편을 보기가 딱했던지 리관린도 얼마간의 돈과 쌀을 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어머니의 일손을 돕고있었다. 삼촌으로서는 사실 돌아간 우리 아버지를 대신하여 가장과 같은 구실을 해야할 처지였다. 가정적으로 삼촌이 할 일이 없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았다. 그 당시 우리 집에는 아버지가 남기고 간 약방이 있었다. 그 약방에 약은 많지 않았지만 잘 운영만 하면 살림에 얼마간의 보탬은 할수 있었다. 그런데 삼촌은 그 약방을 한번도 돌보지 않았다.

(다음호에 계속)

도서 《중국 동북해방전쟁을 도와》 (3)

위기타개의 방략

중국 동북지방에서는 1946년 봄부터 본격적인 국공대결전의 시각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다.

1946년 6월 26일 국민당군대의 중원해방구에 대한 대대적인 《토벌》로 전면적인 제3차 국내혁명전쟁의 막이 열리였다.

1945년 11월에 들어서면서 국민당군대가 단동으로 밀려들었다.

당시 소화(료동군구사령원)부대는 연안근거지와 련계가 끊어져 홀로 국민당군대와 싸우게 되자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군구사령부 참모장을 보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후날 이에 대하여 우리 나라가 해방된 해인 1945년 겨울 료동군구사령원이였던 소화가 단동에서 자신에게 사람을 보내여 왔다고, 그는 국민당군대가 곧 단동을 공격하게 되며 단동에 주둔하고있는 자기 부대가 철수한다고 하면서 단동까지 와줄것을 요청하였다고, 그래서 자신께서 신의주에서 밤을 타 단동으로 건너갔다고 뜨겁게 회고하시였다.

주체34(1945)년 11월 29일 밤 일신의 위험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압록강을 건너 단동의 료동군구사령부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군구의 배치상태와 기동상태, 적군의 배치와 기동에 대하여 료해하시고나서 동북지방에 조성되고있는 엄중한 사태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추이 그리고 중국공산당과 인민이 반드시 승리할수 있는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시고 당장 닥쳐올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전략전술을 사리정연하게 밝혀주시였다. 그리고 소화사령원과 하신 약속대로 국민당군대에 붙들려 돈화방면으로 끌려가고있던 소화사령부 지휘성원들의 가족들을 구원하도록 하시였으며 소화부대의 부상병들과 환자들, 일부 군속들이 우리 나라 북부지대의 안전한 곳에서 치료받도록 해주시고 휴식을 충분히 한 다음 다시 전장으로 갈수 있게 돌봐주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5(1946)년 3월 28일 두만강기슭에 자리잡고있는 북부국경도시 남양에서 강건, 박락권과 함께 주보중을 만나주시고 적의 침공으로부터 연변지구와 동북의 해방지역들을 보위하고 중국공산당이 수세에서 공세에로 넘어갈수 있는 전략전술적방도도 가르쳐주시였다.

하여 중국공산당부대들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한 장춘해방전투가 진행되게 되였는데 여기에는 길동분구사령부산하 박락권이 인솔하는 1련대와 포련대를 비롯한 2만여명의 조선인부대와 동북민주련군부대들이 참가하였다. 전투는 1946년 4월 14일부터 진행되여 총공격을 개시한지 5일만에 완전히 결속되였다. 이 전투에서 훌륭한 군사지휘관이였던 박락권련대장이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그때 그의 나이는 28살이였다. 중국공산당에서는 연길에 그의 비석을 세워 동북해방위업을 위해 한몸을 서슴없이 바친 그의 위훈을 후세에 길이 전하도록 하였다.

국민당군이 《남공북수, 선남후북》의 전략을 세우고 전동북을 독차지할 야망을 실현하려고 3개 방향에서 남만해방구를 대대적으로 공격할 때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조선인부대들은 백두산지구와 로야령산줄기의 대산림지대에 의거하여 유격전과 산악전, 동기대부대기동작전을 벌려 적들을 숨쉴새 없이 수세에 몰아넣으며 송화강이남에 진출하여 적의 집단을 타격소멸함으로써 남만일대에 집중되여있는 적의 력량을 분산약화시키였다. 휘남현성전투에서도 아군은 천수백명의 적들을 소멸, 포로하고 포, 기관총을 비롯한 많은 량의 군수물자를 로획하였다. 이 전투에서 승리의 길을 열어놓은 첫 육탄영웅은 조성두였다.

동북해방의 승전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북해방전쟁의 전기간뿐아니라 중국혁명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수시로 조선인부대들과 동북민주련군(후에는 동북인민해방군)의 지휘성원들과 련계를 가지시고 그들을 직접 만나기도 하시고 전화로 전선상태를 알아보기도 하시며 해당한 대책들을 취해주시고 조언도 주시였으며 대오내에서 참기 어려운 시련이 있을 때에도 사태의 본질을 밝혀주시였다.

한편 동북지구 해방지역들에서 극좌적인 《정풍운동》을 바로잡기 위한 된바람이 불자 이 난국을 수습하기 위하여 중국공산당에서는 주보중을 위대한 수령님께 보내고 중국공산당의 류소기도 명주천에 쓴 친서를 보내여왔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문제를 수습하자면 연변태생이고 연변지구에서 지하공작도 하고 무장투쟁에도 참가하였으며 동만실정에도 밝은 림춘추동무가 가는것이 좋을것이라고 하시며 그를 파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림춘추가 연변에서 성정부 민족사무청장, 연변전원공서 전원, 중국공산당연변지구위원회 부서기로 사업하는 동안 그를 부르기도 하고 서신을 보내기도 하시며 그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지도해주시였으며 그가 맡은 임무를 끝내고 주체38(1949)년 3월 귀국한 후에도 연변대학에서 애로되는 거액의 자금과 도서, 자료들을 마련하여 보내주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사평(심양과 장춘, 해룡과 료원을 련결하는 교통의 중심지이며 중요한 군사요충지)을 내주지 않으려고 이곳에 방대한 무력을 집결해놓고있는 국민당군대와 공산당군대와의 일진일퇴의 공방전이 무려 10개월이나 진행되여 제2차 세계대전시기 쓰딸린그라드격전과 같다고까지 하는 사평전투에 대한 실태를 보고받으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북에 있는 전체 조선인부대들과 인민들이 총동원되여 적들에게 숨돌릴 틈을 주지 말고 집중적인 공격을 들이댈데 대한 작전방안을 취해주시여 최후공격전을 개시한지 2일만에 사평은 완전히 해방되였다. 전투에서 적의 화구를 막아 부대의 진격로를 연 두번째 육탄영웅(김형두)이 배출되였다.

사평전투에서 승리한 후 당시 동북인민해방군 총사령원은 사평전투를 승리로 결속하도록 고견을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주신 위대한 수령님께 높은 신뢰와 존경을 담아 좁쌀 10만t과 흥안령산 수달피로 만든 외투와 사자털돗자리를 선물로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동북해방전쟁의 전국을 내다보시고 제2차 장춘해방전투를 결속하기 전에 금주부터 해방시킬데 대하여 제시하신 작전안을 받들고 진행된 금주해방전투도 시작된지 31시간만에 결속되였다.

1946년 봄에 있은 장춘해방전투후 《중쏘우호동맹조약》에 의하여 국민당군에 장춘을 내준 동북인민해방군이 다시 장춘을 포위하고 반년이라는 세월을 흘러보내고있을 때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장춘계선에 한개 포련대를 파견하는 한편 전면공격이 아니라 기만적인 위협공격과 적군와해공작을 면밀히 결합시키며 항일전쟁시기 성시공격전투를 하던 경험을 살리고 약한 고리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들이대여 돌파구를 열어나가면서 점차 적들을 모조리 소탕해버릴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그이의 가르치심대로 전투를 벌려 1948년 10월 19일 제2차 장춘해방전투는 승리적으로 결속되고 장춘시는 해방되였다. 전투에서 조성두, 김형두에 이어 세번째 육탄영웅 리기춘이 나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장개석군대가 동북땅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심양으로부터 단동을 련결하는 제2전선을 형성하여 적들을 소멸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여 심양에서 금주에 원군으로 나왔던 국민당군대의 료요상병단도 흑산, 대호산전투에서 소멸되였으며 이 전투후 포위속에 들어있던 심양도 해방되였다.

3년만에 동북해방전쟁은 끝났으며 패잔병들이 마지막기대를 가지고있던 영구까지 동북인민해방군에 의해 해방됨으로써 국민당군은 동북땅에서 완전히 쫓겨나게 되였다. 장개석의 처지는 서산락일의 운명에 처하게 되였다.

* * *

걸어온 길과 가야 할 길

아름드리거목도 떠받드는 뿌리가 있고 용용한 대하도 시원이 있다.

수난많던 민족사에 종지부를 찍고 세기와 세기를 빛내이며 승리와 기적만을 떨쳐가는 조국의 오늘은 중중첩첩한 시련과 암운속에서 력사의 새벽길을 헤치신 김형직선생님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조국과 민족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혁명승리에 대한 신념을 안으시고 나라의 해방을 위해 꿋꿋이 싸울수 있은것은 바로 남산의 푸른 소나무의 넋과 기상을 정신적원천으로 하고있었기때문이였다.

사나운 눈보라가 광막한 천지를 휩쓸고 생명체들은 얼어붙어도 푸른빛을 떨치며 서있는 남산의 푸른 소나무의 장한 모습속에는 조선민족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래일이 다 비껴있다.

뜻을 원대하게 가지라

김형직선생님의 고향 만경대에는 싱그러운 소나무의 향기가 풍겨오고 겨울에도 푸른 잎새우에 흰눈을 떠인 소나무들이 서있는 남산이 있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함께 자주 남산에 오르시여 소나무처럼 강의한 의지를 지니고 고난과 시련을 두려움없이 맞받아나가 나라의 독립을 이룩해야 한다고 늘 이르군 하시였다.

눈서리를 이겨내고 사시장철 푸르른 소나무에서 꿋꿋하고 대바른 뜻과 불굴의 기상을 보시였으며 그것을 지원의 사상에 담으신 선생님이시였다.

돌이켜보면 일제가 총칼로 조선을 강점한 후 조선인민은 나라를 찾으려고 필사의 몸부림을 해왔다. 의병들은 창을 들고 《왜멸복국》을 웨쳤고 독립군은 화승대로 왜적들과 싸웠다. 인민봉기의 만세함성이 삼천리를 진감하기도 하였고 애국렬사들이 침략의 원흉들을 처단하기도 하였다. 국권수복을 위해 국채보상운동이라는 눈물겨운 운동도 벌려보았고 세계의 량심에 호소하는 자결의 길을 택하기도 하였건만 나라의 독립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국내와 간도를 비롯한 각지를 종횡무진하시며 장차 독립운동의 방략을 무르익히시는 과정에 조선독립은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이룩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였으며 마침내 주체6(1917)년 3월 23일 조선국민회를 결성하시였다.

한몸의 위험을 무릅쓰고 정력적인 활동으로 조직을 확대해나가시던 선생님께서는 일제교형리들에게 체포되여 온갖 옥고를 다 치르시다가 주체7(1918)년 가을 감옥에서 출옥하시였다. 선생님께서는 제대로 걸으실수 없는 형편이였지만 지금 제 한몸을 생각하고 걸음을 지체하면 조선독립이 그만큼 멀어진다고, 가다가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떠나야 하겠다고 하시며 파괴된 조선국민회조직을 복구하기 위하여 만경대를 떠나시였다.

그날 닥쳐올 겨울의 눈서리를 이겨내고 다시금 양춘을 만나 소생할 소나무의 굳센 모습을 바라보시는 선생님의 입가에서는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의 가사가 한자 또 한자 흘러나왔다.

진정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는 조선혁명에 관통되여있는 민족자주사상과 백절불굴의 혁명정신, 계속혁명사상의 시원이였다.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는 오늘도 뜻을 원대하게 가지고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변함없이 꿋꿋이 싸워나가는 그 길에 최후승리가 있다고 말해주며 조국땅에 끝없이 울려퍼지고있다.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를 들을 때면 눈앞에 안겨온다.

시련과 난관이 겹쌓이는 속에서도 오직 승리의 한길로만 줄달음쳐온 조선혁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래일이…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에 맥박치는 위대한 사상과 정신을 신념으로 간주하신 절세의 위인들께서 조선혁명을 이끄시였기에 아무리 험난한 길을 헤쳐왔어도 조국이 걸어온 길은 영광넘치였으며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은 더욱더 희망넘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형직선생님께서 새겨주신 지원의 뜻을 한생토록 가슴에 간직하시고 조국의 해방을 이룩하시였으며 모든것을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쳐오시였다. 이 나날 영생불멸의 인간중시, 인민중시사상인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고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에 맞서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과 전후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병진로선과 같은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로선들을 제시하여 우리 조국을 이끄시였으며 생애의 마지막시기 경제부문 책임일군협의회에서도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야 한다는데 대하여 절절히 교시하시였다.

혁명위업의 계승은 곧 수령의 위업의 계승이다.

지난 세기 90년대초 이전 쏘련에서 수십년동안 휘날려온 사회주의붉은기가 내리워지는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하여 사회주의의 재생의 봄이 과연 오겠는가 하는 우려가 세계를 감돌았다. 그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 탄생 80돐을 맞으며 진행되는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개막공연의 첫 종목으로 합창 《남산의 푸른 소나무》가 울려퍼지도록 하시여 《진통을 겪는 사회주의위업에 활력을 부어주고 행성에 사회주의〈양춘〉을 불러온 노래》라는 격찬이 터져오르게 하시였다. 그로부터 얼마후에는 세계 여러 나라 정당대표들의 의지를 반영한 력사적인 평양선언이 채택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은 오직 주체의 한길, 사회주의길로 나아갈것이라는 원대한 포부를 안고 걸으신 혁명의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그이께서 한공기의 죽을 드시며 전선길을 끝없이 헤쳐가신 사연, 집채같은 파도속을 작은 쾌속정을 타고 찾아가신 초도, 최대열점지대에 위치한 판문점에 대한 현지시찰, 천길낭떠러지가 굽이굽이 펼쳐지는 전선길로 야전차를 몰아가신 152굽이의 오성산, 낮에도 넘고 밤에도 넘었으며 새벽에도 넘으신 철령…

위대한 장군님께서 걸으신 선군의 그 길은 김형직선생님께서 헤쳐가신 력사의 새벽길,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으신 두자루의 권총을 밑천으로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고 조국땅우에 사회주의락원을 펼쳐놓으시려 어버이수령님께서 걸으신 혁명의 길과 잇닿은 로정이였다.

《남산의 푸른 소나무》의 노래높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위업을 받들어 기어이 최후승리의 휘황한 앞날을 안아오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신념이고 의지이다.

적들의 총구가 도사리고있는 위험천만한 최전방초소에서 멸적의 의지를 굳히실 때에도,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인 로선을 제시하실 때에도 그리고 마두산혁명전적지의 구호문헌을 보시면서도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에 맥박치는 사상과 정신을 신념으로 더욱 굳게 가다듬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혁명의 다음단계의 웅대한 목표를 제시하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기치를 높이 들고 계속혁명의 한길로 힘차게 나아감으로써 사회주의위업을 빛나게 완성하여야 한다고 밝혀주시였다.

앞으로 우리 조국이 가야 할 길은 의연히 험난하다. 그러나 신심은 드높고 승리는 확정적이다.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에 맥박치고있는 사상과 정신으로 만장약되고 선군의 신념으로 백배해진 조선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그 어디에도 없으며 보다 더 원대한 뜻을 가지고 전진하는 사회주의의 승리는 과학이다.

본사기자 리해

- 신년사과업관철을 위하여 -

기능성제품개발에 힘을 넣어

룡악산비누공장에서 질좋은 제품을 더 많이 개발하고 생산하기 위한 열풍이 세차게 일고있다.

공장의 일군인 최영혁은 말하였다.

《우리 룡악산비누공장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향상을 위해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관심속에 일떠선 비누생산기지이다. 지금 공장종업원들은 신년사에서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하여 인민들의 수요와 기호에 맞는 각종 질좋은 제품들을 개발하고 그 생산을 늘이고있다.》

각이한 용도와 효능, 인민들의 기호를 충분히 반영한 물비누들과 세척제들은 그 종류만 해도 수십종이나 된다.

피부와 섬유에 대한 손상이 없고 가정부인들의 편의를 도모해주는 여러가지 옷물비누와 첨단기술로 얻은 생리적활성물질과 천연향 등을 첨가한것으로 하여 피부를 부드럽고 매끈하게 하여 상쾌한 감을 주는 몸물비누들…

공장에서는 발전하는 현실과 인민들의 요구에 맞게 기능성제품개발을 발전전략으로 내세우고 근기있게 내밀고있다.

공장의 종합분석실에서는 원료나 생산된 제품에 대한 분석, 검사만이 아니라 원료투입으로부터 진공유화, 혼합교반, 주입, 포장에 이르는 생산의 전공정에 대한 분석과 검사를 진행하고있다.

또한 기술개발실에서는 비누생산용원료와 향료의 국산화를 실현하며 나이별, 성별, 지역별에 따르는 새 제품들의 개발과 기술갱신사업이 활기를 띠고 벌어지고있다.

정명화, 전영숙을 비롯한 연구사들의 노력으로 여러가지 기능성원료를 리용한 탈모방지, 피부보호, 로화방지 등 100여종의 물비누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준비도 완성단계에 이르고있다.

여러가지 기능성재료들을 배합하여 영양을 개선하고 보습효과를 나타내는 여러종의 샴푸와 린스를 비롯하여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들에는 자기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들을 명제품, 명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는 공장연구사들과 종업원들의 모습이 비껴있다.

현재 공장에서 생산되고있는 수십종의 물비누들과 그릇세척제들은 평양제1백화점을 비롯한 상업봉사망들과 각 도에서 인민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글　본사기자 전룡진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 신년사과업관철을 위하여 -

영양가높은 버섯을 더 많이

조국에서 버섯생산이 활발해지고있다. 각지에 버섯생산기지들이 일떠서 은을 내고 평양시에서도 몇해전 버섯공장이 건설된데 이어 지난해 또 하나의 버섯공장이 솟아나 생산에 들어간것을 놓고도 그렇게 말할수 있을것이다.

얼마전 우리는 지난해에 새로 일떠선 평양버섯공장을 찾았다.

이 공장일군 최영철의 말에 의하면 공장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발기와 정력적인 령도에 의해 일떠섰다.

공장에서는 올해 정초부터 버섯생산목표를 높이 세우고있는데 그 생산량이 대단하다. 그러한데는 공장에 원료투입으로부터 마감공정에 이르기까지 버섯기르기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충분히 갖추어져있고 그 생산능력이 크고 집약화되여있으며 통합생산체계와 과학기술보급체계까지 완벽하게 구축되여있는데 있다. 그리고 버섯생산의 과학화, 집약화, 공업화의 토대를 튼튼히 갖추고있는 공장에서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은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생산열의가 높은것과도 관련되여있다.

우리와 만난 기대공 김정철은 말하였다.

《지금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생산설비들에 정통하고 눈동자와 같이 애호관리하며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여 계획보다 버섯생산을 더 늘이기 위해 애써 노력하고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들은 알곡부산물을 적게 쓰면서 벼짚이나 강냉이속 같은것을 리용하는 발효법에 의한 버섯생산의 공업화를 실현하였다고 하면서 이 발효법은 멸균공정을 거치지 않아 실리가 있고 생산성도 높다고 하는것이였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버섯을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보내주겠는가.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하며 일한다.》라고 최영철은 말하며 우리를 태양열박막온실로 안내하였다. 태양열박막온실에서는 버섯과 함께 많은 남새도 병합재배하고있었다. 흰곤봉버섯과 팽나무버섯, 남새를 기본으로 생산하면서 버섯생산과정에 나온 폐기물을 다시 리용하여 거기서 벼짚버섯과 비늘먹물버섯을 생산하고있었는데 그 수확도 적지 않았다.

공장에서는 버섯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하는것과 함께 생산공정의 현대화와 정보화, 무균화, 무진화수준을 더욱 높이고 제품포장을 보다 개선하기 위한 대중적기술혁신운동도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이곳 로동자 최용국은 말하였다.

《과학기술이자 생산이라는 관점밑에 벌어지는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속에서 나도 집단의 방조속에 버섯생산을 늘일수 있는 재배방법을 내놓을수 있었다. 그것이 비록 소박한것이지만 인민들에게 더 많은 버섯을 보내주는데 적은 힘이나마 기여하였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기쁘다.》

글 본사기자 최기철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부강조국건설에 한몫하는 녀성들

우리 조국에는 인민의 사랑과 축복속에 부강조국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워가는 수많은 녀성들이 있다.

그들의 일부를 소개한다.

견고하고 안전한 건축물로

주체104(2015)년 10월 평양의 경치아름다운 대동강에서는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1만명대공연이 진행되였다. 수천명의 합창대성원들과 관록있는 배우들을 비롯하여 1만명이 출연하는 공연은 사람들의 심금을 틀어잡았다. 그러나 물우에 떠있는 무대에 대하여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주수인

그 수상무대설계의 주개발자가 평양건축종합대학 공훈과학자 교수 박사 주수인이다.

주체104(2015)년 7월 주수인에게는 짧은 기간에 길이 100m, 너비 80m나 되는 수상무대의 설계를 완성하여야 할 과업이 나섰다. 당시까지만 해도 그렇게 큰 수상무대는 우리 나라에서뿐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처음이였다. 합창대만 해도 길이 80m, 높이 10m정도가 되고 합창대인원은 3 000명, 각종 배경구조지지물들로 하여 하중이 앞부분보다 뒤부분에 많이 쏠리게 되여있었다. 중요한것은 가장 안전하고 견고한 힘받이를 구성하는것이였다.

처음해보는 대형수상무대설계였지만 그는 사색과 탐구를 이어나갔다. 문헌자료탐독과 여러가지 방안을 내놓고 콤퓨터상에서 대비분석하기를 그 몇십번…

구조물의 무게, 바람과 물결작용, 가상적인 지진의 작용 등을 해석한데 기초하여 그는 마침내 적은 자재를 들이면서도 최단기간내에 설치할수 있는 강철구조물설계를 완성하여 대공연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5월1일경기장개건공사에 참가하여 지붕트라스의 현상태분석과 보강대책을 제시하고 실현시킨것을 비롯하여 무게가 가벼운 강철로 된 라멘건물구조설계, 수많은 자재를 절약할수 있게 한 고산과수종합농장의 지지말뚝 등 그가 건축분야에 이바지한 연구성과들은 실로 많다.

그는 지금 살림집건설에 쓰이는 일부 자재를 우리 나라의 것으로 리용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고 현실에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욕심많은 혁신자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의 많은 혁신자들중에는 조사공 김정향도 있다. 공장일군의 말에 의하면 그는 지난 몇년동안에 14년 8개월분의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지난해 6월 공장을 찾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가 70일전투기간에 2년분계획을 넘쳐 수행한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 당시 그는 그이를 만나뵙는 자리에서 200일전투기간에 6년분계획을 완수할 결의를 다지였다.

그는 하루정량을 60추로부터 160추로 늘이고 작업교대를 스스로 연장해가며 앞장에서 내달리였다. 쉬임없이 순회길을 달리던 나날 그가 요구한것은 더 많은 누에고치와 증기, 물이였다.

김정향

이악하게 노력한 보람이 있어 마침내 그는 지난해 200일전투기간에 자기의 결의를 실천하였다.

길게 뻗어간 자동조사기를 오가며 재빠른 솜씨로 실을 이어주는 그에게 6년분계획수행의 비결이 무엇인가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 혼자 노력한것이 아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다진 결의는 나만이 아닌 공장이 다진 결의라며 모두가 도와나섰다. 서로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속에 공장에는 집단주의경쟁열풍이 세차게 일어났으며 모두가 로력혁신자로 되였다.》

지금 그는 올해 태양절까지 2년분계획을 완수할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비단실생산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산같은 비단실을 생산하였건만 더 많은 비단실을 뽑으려는 그의 욕심은 끝이 없다.

명제품의 개발자

오늘 《평양소주》, 《평양주》, 《고려술》은 나라를 대표하는 명주로 조국인민들이 좋아하고 사랑을 받는 제품으로 되고있다. 그 개발자가 대동강식료공장 기사장 최현실이다.

사람들은 아마 술도 마시지 않는 녀성이 나라의 명주를 개발하였다면 놀랄것이다.

언제인가 최현실은 우리 나라에도 명주가 있어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알게 되였다. 나라의 명주를 개발하는것이 응당 자기가 해결하여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 그는 그 연구사업에 달라붙었다.

전통적으로 내려온 조국의 술들과 세계의 이름난 술들에 대한 자료들, 술가공기술도서들을 파고들며 명주의 맛과 향기를 찾기 위하여 그가 보낸 고심어린 탐구의 낮과 밤이 얼마인지 모른다. 그 나날 그가 연구사업의 기준으로 삼은것은 깨끗하고 순결하며 다정다감한 우리 민족의 특성이였다.

최현실(가운데)

마침내 그는 첨가제로 들어가는 향기성효모에 의한 흰쌀감압소주의 생산방법을 연구하고 현실에 도입함으로써 부드러우면서도 감칠맛있고 상쾌한 조선의 명주를 개발하였다.

그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평양주》, 《고려술》을 인민의 기호에 맞으면서도 나라의 대표적인 술로 완성하기 위한 사업을 벌리였다. 이 과정에 인삼의 특이한 향기와 찹쌀누룽지의 구수한 맛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불순성분의 분리방법을 연구완성함으로써 누구나 마시기 좋은 기능성술인 《고려술》을 세상에 내놓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가 개발한 《평양소주》, 《평양주》, 《고려술》의 맛을 보아주시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리은별

유모아

문득 깨닫다

뽈 하나가 휙 날아 어느 한 집의 창문유리를 깨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한 아이가 와서 그 집문을 두드렸다.

《우리 아버지가 이제 와서 새 유리를 넣어줄거예요.》

이때 정말 한 남자가 자기 집으로 오는것을 보고 그 집 아주머니는 아이에게 뽈을 넘겨주었다. 아이는 갔다. 아이의 아버지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유리를 다 넣고나서 《10원 내십시오.》라고 하였다.

《아니, 당신은 이자 그 애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주머니가 놀라서 물었다.

《뭐라구요? 그럼 부인은 그 애의 어머니가 아닙니까?!》

유리를 넣어준 사람이 눈을 크게 뜨고 되물었다.

* * *

푸른 숲을 위해 마음바쳐가는 사람들

우리 조국에는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푸른 숲을 위해 자기를 다 바쳐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만경대구역산림경영소의 양묘작업반 성원들이 바로 그러하다.

지난 기간 이곳 작업반성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시여 어린시절을 보내신 만경대가 자리잡고있는 구역의 산림경영소에서 일한다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양묘장을 훌륭히 꾸리고 여기에서 수종이 좋은 갖가지 나무모들과 꽃관목, 화초들을 수많이 키워내여 구역안의 여러곳에 보내주었다. 양묘장은 그리 크지 않고 사람들도 많지 않지만 그들은 지금까지 소문없이 큰일을 하고있다.

우리가 이곳을 찾았을 때 일손이 바쁜 속에서도 작업반장 리종남은 선뜻 우리의 취재에 응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봄철나무심기철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박막온실에서 키운 창성이깔나무와 세잎소나무, 백송 등을 내고있는데 중요한것은 이 나무모들의 뿌리가 끊어지지 않게 잘 떠야 한다. 그래서 저렇게 모두가 책임적으로 일을 하고있는것이다.》

설비의 리용률을 높이기 위해

양묘장의 일부

그러면서 그는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집약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린 결과 지난 시기에는 이런 나무모들은 야외에서 품을 많이 들이면서도 3년이상 자래워야 하였지만 지금은 온실에서 1년동안 키워도 야외에서 얼마든지 잘 자랄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체로 농기계들을 창안제작하여 나무모생산에 리용하고있는데 그 능률이 높다고 말하였다.

이곳 작업반성원들이 여러가지 용액으로 나무모의 뿌리처리를 하여 자동차에 정히 싣는 모습을 보면서 진심을 바쳐가는 그들의 마음을 읽을수 있었다.

산에 옮겨지는 나무모들

그러는 우리에게 관리공 허광문은 《나무의 사름률을 높일수 있는 담보는 양묘장에서부터 마련된다. 우리는 나무모들을 충실히 키우는것과 함께 나무모의 뿌리를 자체로 연구생산한 뿌리처리제로 처리해줌으로써 나무의 사름률을 1.5배이상 높이였다.》라고 말하였다.

알고보니 그는 작업반의 기술혁신, 창의고안명수였다. 지난해에도 자동적인 병해충막이유아등을 창안제작하여 전문가들의 주목을 끌었다고 한다. 그만이 아니라 기술공정원인 리성일도 작업반성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과학기술보급사업을 힘있게 내밀면서 백송을 풍토순화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이곳 작업반성원들의 열정과 노력에 의해 이렇듯 해마다 봄과 가을의 나무심기철이면 백송을 비롯한 수많은 여러가지 나무모와 함께 꽃관목, 화초들이 생산되여 적지에 옮겨져 구역관내의 사적지들은 물론 거리와 공원, 산들이 푸르게, 아름답게 단장되고있다.

리종남을 비롯한 작업반성원들은 자기들의 노력에 의해 조국산천이 푸르러져 가는것을 볼 때면 정말 가슴이 뭉클해진다며 이 멋에 일을 한다는 생각, 푸른 숲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상식

몸안에 필요없는 기관이 있는가

일부 사람들이 몸안에서 편도, 충수 같은것은 필요없기때문에 떼버려도 일없다고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몸안의 모든 기관들은 자기의 고유한 기능이 있기때문에 쓸데없는 기관은 하나도 없다고 인정하고있다.

편도를 여러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화근으로 보면서 갓난아이때부터 서슴없이 떼여냈지만 오늘에 와서 편도는 세균과 유해물질이 페와 소화기관에 침입하는것을 막아주는 보초병이라는것을 알게 되였다.

충수도 하나의 퇴화되버린 기관으로 보고 지난 시기에는 배수술을 할 때 충수에 염증이 없어도 잘라버리군 하였다. 그러나 면역학자들은 충수는 면역계통의 한 부분이므로 떼버리지 말것을 권고하고있다.

흉선(가슴선)도 어린이급사와 관련되는 기관으로 보면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위축시켜버리려고 하였지만 최근에는 흉선이 면역계통에서 중추적역할을 함으로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역시 송과체(솔방울체-간뇌의 후상방에 돌출한 추체모양의 소체)도 필요없는 기관으로 인정해왔으나 성적조숙을 미리 막고 잠을 자게 하는 기관으로 인정하고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사람몸안에서 필요없는 기관은 하나도 없다는것을 말하여준다.

*　　*　　*

흥성이는 만수교청량음료점

평양의 보통강기슭에는 사람들이 즐겨찾는 만수교청량음료점이 있다. 이 음료점은 늘 사람들로 흥성인다.

우리는 얼마전 만수교청량음료점을 찾았다. 그날도 음료점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있었다. 그들은 강냉이단설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빵과 함께 햄버거, 쌘드위치 등 다른 나라의 빵류들을 맛나게 드는가 하면 보기만 해도 대번에 군침을 돋구어주는 대동강맥주를 기분좋게 마시고있었다.

그들속에는 평양시민들뿐아니라 지방사람들도 있었다.

우리는 황해북도 신평군에서 왔다는 김정순로인을 만나보았다. 알고보니 로인은 평양에서 살고있는 아들, 며느리, 손자들과 함께 단란한 가정적분위기에서 식사를 하고있었다.

식당에 온 소감을 묻는 우리에게 그는 식당이 매우 잘 꾸려져있고 봉사자들도 인사성이 밝고 친절한게 딸자식처럼 생각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강냉이로 만든 단설기가 별맛이라고 하였다.

그런 심정은 며느리도 같았다. 하지만 아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뭐니뭐니해도 대동강맥주가 최고라며 이곳에서 봉사하는 1번부터 7번까지의 맥주중에서도 1번맥주가 발효된 보리의 맛이 강하게 느껴지고 어릴적 고향마을의 정취가 안겨오는것만 같아 제일이라고 하는것이였다.

풍성한 거품과 여러가지 빛갈의 맥주를 마시며 웃고 떠드는 사람들가운데서 우리는 평양326전선공장에서 온 리성철도 만나보았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만수교청량음료점은 모든것이 다 훌륭하다. 그래서 자주 하루일을 끝내고 작업반성원들과 함께 여기에 와 봉사를 받는데 그 멋이란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피로가 쭉 풀리고 마음마저 상쾌해지는게 정말 좋다.》

평양시 동대원구역에서 살고있다는 고영일부부와 모란봉구역의 장철, 지영환 등 만나본 사람들모두의 심정이 한결같았다.

만수교청량음료점은 이곳을 찾는 외국인들로 하여 보다 더 흥성이고있다.

기분이 둥 뜬 스위스의 한 인사는 《만수교청량음료점에 와서 훌륭한 체험을 하였다. 멋진 건물에서 친절한 봉사와 함께 훌륭한 맥주를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였으며 오스트랄리아에서 온 한사람은 《오늘 귀국사람들과 같이 맥주를 마셨는데 이 추억을 잊을수가 없다. 그리고 맥주맛도 마시던중 제일이다.》고 자기의 심정을 이야기하였다.

사람들의 열기로 음료점은 시간이 갈수록 뜨겁게 달아올랐다. 창밖에서는 보통강반에 묶이여있는 나포된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찬바람에 떨고있지만…

글 본사기자 최기철
사진 본사기자 최원철

승리에서 더 큰 승리에로

- 체육성 국장 방문일과 본사기자의 대담 -

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지금 체육부문에서도 새로운 혁명적앙양이 일어나고있다고봅니다.

우승의 금메달은 훈련에서 흘린 땀방울에 의하여 마련된다며 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는 우리 체육인들의 모습을 보느라니 지난해 그들이 이룩한 성과들이 먼저 되새겨집니다.

방문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체육인들은 지난해 국제축구련맹 2016년 17살미만 녀자월드컵경기대회와 20살미만 녀자월드컵경기대회에서 우승함으로써 만리마시대의 축구신화를 창조하였으며 제31차 올림픽경기대회와 2016년 세계청년력기선수권대회를 비롯한 수많은 국제경기들에서 50여개의 금메달을 포함하여 백수십여개의 메달들을 쟁취하였습니다.

력기선수들인 림정심, 김국향, 최효심, 엄윤철과 기계체조선수 리세광, 축구선수들인 김소향, 리향심, 탁구선수 김송이, 사격선수들인 김성국, 박명원과 감독들인 김춘희, 신명수, 황영봉, 신정복, 김명호, 로현철, 김진명, 김철호, 리승일, 박순녀가 2016년 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 감독들로, 함수경 외 9명이 10대최우수태권도선수로 선정되였습니다.

체육성에서는 전형단위, 본보기단위를 창조하고 보여주기와 실무강습을 통해 체육부문이 따라배우기, 따라앞서기, 경쟁열풍으로 부글부글 끓게 하였으며 선수후비양성단위들에서 체육선수후비자료기지를 구축하고 교수훈련의 과학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온 나라가 체육열기로 세차게 들끓는 가운데 200일전투기간에만도 전국적으로 450여개 단위들이 모범체육단위칭호를 쟁취하였습니다.

제20차 전국체육과학기술성과전시회에 체육부문과 성, 중앙기관, 과학연구기관, 대학들을 비롯한 전국의 330여개 단위들에서 1 140여건의 체육과학기술성과들을 출품한것만 보아도 우리의 체육과학기술의 발전면모와 체육에 대한 사회적관심의 일단을 잘 알수 있습니다.

기자: 참으로 2016년은 조선로동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끓어번진 한해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국제축구련맹 인터네트홈페지에 오른《2016년은 조선축구의 해》라는 제목의 글이 인기가 대단하였는데 글에서는《그 어느 나라도 조선과 같이 한해에 두차례나 녀자월드컵을 쟁취하는 성과를 달성한 전례가 없다. 조선팀의 완강한 공격정신과 지칠줄 모르는 투지가 맞다드는 모든 팀들을 타승할수 있은 요인으로 되였다.》라고 썼습니다.

방문일: 옳은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체육인들은 지난해 거둔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올해에 더 큰 승리를 안아올 드높은 열의에 넘쳐있습니다.

달려도 세계의 앞장에서 달리고 이겨도 통쾌하게 이기며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것이 백두의 혁명정신을 구현한 주체조선의 체육정신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지금 우리 체육인들은 사상전, 투지전, 속도전, 기술전의 경기원칙과 방법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체육기술을 련마해나가고있습니다.

저는 체육부문의 한 일군으로서 늘 앞채를 메고 체육인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사상의 강자들로 억세게 준비시켜나가며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실현하는 사업에 한몸을 초불처럼 불태우겠습니다.

* * *

경제개발구창설에서 특혜제도의 실시에 대하여 (2)

경제개발구창설에서 중요한것은 나라의 리익에 맞게 외국투자기업들이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리용과 거래를 원만히 진행할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를 수립하고 실시하는것이다.

우선 공화국정부는 외국투자기업들이 경제개발구토지를 정리하며 필요한 하부구조대상건설에 자유롭게 참가할수 있도록 한다.

개발기업의 토지정리와 하부구조대상건설에는 다른 외국투자기업들도 자유롭게 참가할수 있다. 경제개발구의 토지정리와 하부구조를 비롯한 대상건설은 국가로부터 개발사업권을 부여받은 개발기업이 맡아한다. 개발기업이 건설능력이 큰 외국투자기업들과 청부건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정리와 하부구조건설을 진행하여야 그들사이에 경쟁심을 자극하여 가장 합리적인 투자로 가장 훌륭하게 토지정리와 하부구조대상들을 건설할수 있다.

또한 공화국정부는 외국투자기업들이 여러가지 건물건설에 자유롭게 참가하도록 한다.

경제개발구에는 관리기관의 사무실을 비롯하여 개발구기업들이 공동으로 리용하는 여러가지 건물들도 건설된다. 은행, 상품전시장, 주차장, 도로, 병원, 공원 등 공공건물들과 여러가지 용도의 시설물건설은 개발총계획에 반영되여 대체로 개발기업이 맡아한다.

공화국정부는 외국투자기업들이 개발기업으로부터 토지리용권을 자유롭게 구매하고 필요한 건물들을 건설한 다음 건물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도록 한다.

또한 공화국정부는 외국투자기업들이 경제개발구의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도록 한다.

경제개발구에 들어온 외국투자기업들은 기업창설승인을 받으면 자기의 경제활동에 알맞는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려고 한다. 이 경우 외국투자기업들은 필요한 면적의 토지리용권을 구매한 다음 생산공장과 같은 건물을 건설하거나 이미 지어놓은 건물이 있다면 그것을 구매 또는 임대받는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다.

특혜적인 부동산거래제도의 실시는 외국투자기업들이 경제개발구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 위치나 면적에 대하여 불필요한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서도 표현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모든 외국투자기업들에게 부동산의 위치, 면적과 관련하여 자유롭고 선택적이며 평등한 취득기회가 차례지도록 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가 장려하는 대상들에 투자하는 외국투자기업들에는 우선적이며 보다 유리한 부동산취득기회가 제공될수 있다. 이 경우 그와 같은 내용들이 미리 국내외에 공개됨으로써 부동산거래에서의 평등과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공화국정부는 또한 외국투자기업들이 경제개발구에서 부동산거래가격을 자유롭게 정하도록 한다.

경제개발구에서 부동산거래는 가치법칙에 기초하여 진행되므로 외국투자기업들은 부동산의 판매가격이나 임대료를 자유롭게 정할것을 요구한다.

부동산거래가격에는 토지리용권가격, 건물매매가격,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 부동산의 저당가격, 여러가지 거래수수료등이 속한다.

경제개발구안에서 부동산거래가격은 그 수요정도에 따라 거래당사자들이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해진다. 부동산의 수요정도는 해당 경제개발구의 류형, 들어온 기업들의 수, 지리적위치, 하부구조의 현대화수준과 완비성정도, 남은 토지의 면적 등에 따라 시기별로 각이하므로 그 거래가격도 각이하게 정해질수 있다.

부동산거래가격을 외국투자기업들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수 있도록 규정과 준칙들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부동산거래가 진행될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해주는것은 특혜적인 부동산거래제도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국가가 장려하는 대상들에 투자하는 외국투자기업들에 대하여서는 개발기업이 토지리용권판매가격이나 건물판매가격을 낮게 정하거나 그 값을 후에 지불받도록 요구할수 있다.

이와 같이 경제개발구들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특혜적인 부동산거래제도를 실시하는것은 경제개발구창설에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인민경제대학 부교수 강용룡

고향소식

과학중시열풍이 이는 고장

지난해 4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살고있는 조은삼동포가 평안남도 개천시 봉천동 20인민반에서 살고있는 녀동생 조인숙을 비롯한 혈육들을 감격속에 만났다. 기쁨속에, 눈물속에 서로 《오빠!》, 《동생아!》 하며 얼싸안고 수십년 세월 쌓이고쌓여온 그리운 정을 다 터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눈시울을 적시였다고 한다. 하여 동포들의 고향소식을 전하는 우리의 이번 취재길은 개천으로 향하게 되였다.

조은삼동포의 녀동생 조인숙의 가정

우리가 조인숙녀성의 집을 찾았을 때는 한낮이 되여오는무렵이였다. 조인숙녀성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며 방안으로 이끌었다.

《꿈만 같이 만난 오빠생각을 하면 지금도 눈굽이 젖어듭니다. 그래서 오빠에 대한 그리움으로 편지를 쓰려던 참이였는데…》라며 조인숙녀성은 오빠를 만났을 때 다하지 못한 자기 고장에 대해 쓰면 어떨가 하고 생각하고있던중이였다면서 그 내용을 펼쳐놓았다.

대동강과 청천강사이에 있는 고장이라고 하여 개천으로 불리운다는 개천의 유래로부터 시작하여 개천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배움의 천리길[주체12(1923). 3. 16.]과 광복의 천리길[주체14(1925). 1. 22.]을 걸으신 력사의 로정이 새겨져있고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수십차례나 현지지도하신 곳이라는것,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대로 자기 고장이 사람인자(人)로 건설되였다는것, 우리 나라 서부지대교통의 중심지이고 석탄, 광석채굴과 금속, 기계공업이 발전하였으며 이름난 송암동굴과 연풍호도 있다는것 등 그의 이야기는 자기가 사는 고장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일관되여있었다. 그가운데서도 자기 아들 염기성이도 그러하지만 그 어느곳에 가보아도 과학기술중시열풍이 일고있다는데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호기심을 끌었다.

동포의 동생을 만나본 후 우리는 취재차의 차창밖으로 흘러가는 개천면옥, 은덕원, 시문화회관, 개천영예군인악기공장 등을 뒤에 두고 유치원시기부터 콤퓨터교육을 하고있다는 개천시유치원에 먼저 들리였다. 유치원에서는 콤퓨터로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있었는데 높은반에서는 우리 나라 자연에 대한 수업을 하고있었다. 유치원어린이들에게 나서자란 고향에 대한 자랑과 사랑을 안겨주고 과학의 힘으로 고향땅을 꾸려나갈 마음을 키워주는 모습은 참으로 인상적이였다.

그런 모습은 개천시청소년체육학교에서도 찾아볼수 있었다. 레스링감독 김봉남은 지난해에 있은 전국청소년체육학교체육경기대회 레스링경기에서 자기 학교가 1등을 하였다며 레스링기술을 부단히 과학화하고 련마하여 올해에 진행되는 선수권대회에서도 1등은 문제없다고 자신있게 말하는것이였다.

희천12호발전소와 호수에 설치한 이동식 그물우리양어장

우리는 채굴, 건재, 화학, 제약, 일용품, 식료, 방직 및 피복공업부문의 공장들뿐아니라 개천시인민병원에서도 과학을 앞세워가는 모습을 볼수 있었다.

병원에서는 진단의 정확성을 위한 복부초음파실을 중시하고있었다. 물론 설비도 좋았지만 그보다는 의사 정성룡이 높은 의술과 친절성, 정확성으로 진단을 내리고있었다. 알고보니 그는 원래 내과의사였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저 시대의 요구를 따랐을뿐입니다. 하루일이 끝난 다음 미래원에 가서 쌓고있는 의학과학기술지식의 탑이 그런 결과를 가져온것 같습니다.》

결국 풍부한 환자치료경험과 과학기술에 의거한 높은 의술, 책임성이 은을 내고있는것이였다.

조인숙녀성의 아들도 그래, 정성룡의사도 그래 저저마다 찾아간다는 그 미래원에 우리가 도착하니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는 구호가 나붙어있는 1층홀로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고있었다. 원격강의실과 2개의 전자열람실, 봉사기실, 다매체열람실, 통보강의실, 성인열람실 등과 서고로 되여있는 3층짜리 미래원에서는 수많은 근로자들과 학생들이 과학의 세계를 파고들고있었다.

미래원 관장 리혜영은 말하였다.

《우리 개천땅에서도 과학기술이 기관차의 역

연풍과학자휴양소

개천시미래원에서

개천시유치원에서

개천시인민병원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것은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할수 있다.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구현된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겨 참다운 인간사랑의 세계를 체험하며 값높은 삶을 누리고있는 사람들속에는 평안남도 순천시인민병원 기술부원장 박광만도 있다.

지난해 8월 어느날 병원으로는 뜻하지 않은 사고로 몸을 다친 순천화학련합기업소의 한 로동자가 실려왔다.

중증뇌좌상, 다발성륵골골절 혈기흉, 대퇴하단부 우측다리골절…

환자는 의식이 없었다. 그의 병력서에는 여러가지 병명들이 가득 적혀졌다.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 환자의 가족들은 이제 당장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를 살려낼 방도가 없을것이라고 생각하고있었다.

기술부원장 박광만의 사무실에서 긴급협의회가 열리였다.

박광만의 낮으면서도 정깊은 목소리가 방안을 울리였다.

《지금 환자는 최악의 상태에 있습니다. 환자를 살려내는가 못내는가 하는것은 결정적으로 우리 보건일군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야말로 기적을 창조할수 있는 정신적원천이라는것을 명심하고 무조건 환자를 살려냅시다.》

환자에 대한 치료대책을 세운다.

그때로부터 50여일간 15차의 협의회와 20여차의 크고작은 수술이 진행되였다.

박광만은 자기가 직접 그 수술들중의 중요수술을 집도하여 기어이 환자를 살려냈다. 그리고 환자가 호전기에 들어섰을 때에는 수많은 보약들과 영양식품들을 마련하여 그에게 안겨주었다.

완치된 로동자가 병원을 나서던 날 박광만은 머리숙여 인사를 하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고마움의 인사는 내게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회주의보건제도를 마련해주시고 빛내여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먼저 드려야지. 이런 훌륭한 우리 제도가 있기에 의료일군들의 정성도 그토록 깊고 뜨거운것이라네. 부디 건강관리를 잘해서 나라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길 바라네.》

이야기를 마치는 박광만의 눈앞에는 일본 기후현 다지미시에서 품팔이군의 아들로 태여났어도 따뜻한 조국의 사랑속에 아이찌조선제6초급학교에서 무료의무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나날들과 주체54(1965)년 3월 그의 온 가족이 꿈결에도 가고싶던 은혜로운 조국의 품에 안기던 때가 어려왔다.

평안남도 순천시에서 당시의 인민학교와 중학교를 마치고 리수복고등화학공업학교(당시)를 졸업한 그는 희망대로 평양의학대학(당시)에 입학하여 자기의 꿈을 마음껏 꽃피웠다.

의학공부를 하는 과정에 박광만은 조국에서는 인간을 제일 힘있고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며 사람마다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살며 일하고있는것을 심장으로 체험하게 되였다.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혈육이 아닌 사람들이 자기의 피와 살을 서슴없이 바치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인간사랑의 세계속에서 바로 자기가 살고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게 되였고 이런 훌륭한 사회주의보건제도를 세상에 빛내일 일념이 의학지식과 함께 다져졌다.

우리와 만난 순천시인민병원 외과과장 강금철은 이렇게 말하였다.

《박광만선생이 우리 병원에서 기술부원장사업을 한 때로부터 벌써 10년이 되였습니다. 그는 병원의료일군들과 환자들로부터 실력있는 선생이라는 평가만이 아니라 뜨거운 심장을 지닌 인간이라는 존경을 받고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박광만은 지난 기간 자기 몸의 100여곳에서 피부를 떼내여 중환자들에게 이식하였으며 몇해전에는 한 로동자에게 자기 눈의 각막까지 떼여 넣어주었다.

박광만은 사람의 미량원소함량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나가는 과정에 《빈혈과 미량원소》, 《미량원소결핍증과 림상》을 비롯하여 3건의 도서를 집필하였으며 《인체의 조직과 장기속미량원소함량동태를 밝히기 위한 연구》를 비롯하여 수많은 소론문을 발표하여 발명권, 과학기술상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 학위도 받았다.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고 모든 사색과 의료활동을 진행해나가고있는 박광만은 오늘도 사회주의보건제도를 빛내여나가는 성스럽고 긍지높은 길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고있다.

글　본사기자 려　해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가족과 함께

할을 하고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안의 많은 근로자들이 미래원에서 얻은 과학기술지식의 덕으로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학기술적방안과 실행대책 등을 세워나가고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과학기술전당과 국가과학원 등 여러 기관과의 사업을 더욱 짜고들어 우리 시를 과학기술로 흥하게 하는데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과학기술로 더욱 흥하게 될 개천땅의 모습을 그려보며 우리는 다음 취재지로 걸음을 옮기였다.

글　본사기자 한신애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상식

《세종악보》

1453년에 출판인쇄된 《세종악보》(12권)는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음악리론가인 박연 등이 편찬한 악보집이다.

《세종실록》에 실려있는 악보집이라고 하여 《세종실록악보》라고도 한다. 《세종악보》는 15세기 초엽에 창안된 정간식문자표기법으로 기보되여있는 악보집이다. 이 악보에서는 세로 32칸으로 된 줄칸에 12률명의 첫 글자들을 써넣는 방법으로 음악을 표기하였는데 12률명의 매개 글자들은 실음을 의미하였다.

《세종악보》는 12률명을 사용하는 고정《도》법원칙에 기초하여 음악을 기보함으로써 악보가 언제나 명확하고 절대적일뿐아니라 악보상에서 각이한 조성의 악곡들을 자유롭게 표기할수 있었다. 《세종악보》는 악기군과 노래성부 및 가사 등 여러개의 성부들을 종합적으로 표기한 총보형태의 악보이다.

《세종악보》가 현재 《세종실록》이 전하는 악보체제로 완전히 갖추어진것은 장편악장가사인 《룡비어천가》가 창작된 1445년이후시기였다. 이 악보집에는 라렬식문자표기법으로 기보된 아악보, 정간식문자표기법으로 기보된 정대업보, 보태평보, 발상보, 여민락보, 치화평보, 취풍형보, 봉황음보, 만전춘보 등이 실려있다. 《세종악보》는 조회악, 연례악, 제례악의 대관현악합주때 총보로 리용한 악보집으로서 여기에 실려있는 악곡들은 정재(악무)와 결합되고 규모가 큰 성악과 기악의 련쇄곡으로 되여있다.

《세종악보》는 중세기 우리 나라 음악표기법발전에서의 혁신적성과와 15세기 전반기 직업음악의 발전된 면모를 보여주는 오랜 귀중한 악보유산으로서 거기에는 전통적인 민족가요형식의 요소들과 선률표현적특질이 이모저모로 반영된 방대한 량의 음악작품들이 실려있는것으로 하여 음악사적가치가 있는것이다.

* * *

로씨야 싸할린주고려인통일련합회 리구율동생 앞

보고싶은 동생에게

동생, 그동안 잘 있었소.

제수도 건강한지.

평양에서 동생을 만나던 때가 엊그제같은데 벌써 1년반이 되여오누만.

그때 동생은 조선로동당창건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조국을 방문했었지.

비록 6년만에 만난 동생과 많은 시간을 바쳐 이야기는 나누지 못했지만 정말이지 혈육의 정이 차넘쳤던 감격적인 상봉을 잊을수가 없소.

조카들이랑 데리고 함께 오지 않은데 대해 섭섭해하던 동생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구만.

그때 오래간만에 만난 동생과 왜 사진을 찍지 못했던지.

우리 자식들이 사진 한장 남기지 못한 나와 로친을 탓하군 하는데 아닌게아니라 그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후회가 막심하오.

동생, 우린 모두 잘 있소. 내 나이 일흔을 넘기였지만 앓는데 없이 건강하오. 애들은 자주 쉬라고 하지만 어디 가만 앉아있을수가 있어야지. 그래 자식들이 나라를 위한 일에 열성을 내라고 뒤바라지나 하고있지.

단천광산기계공장에서 일하고있는 맏아들 명남이와 단천제련소에서 일하고있는 명일이, 막내딸 금희네도 모두 잘 있소. 평양에서 동생이 만나보았던 맏딸 명희네도 잘 있소. 며칠전에도 전화가 왔댔는데 삼촌한테서 소식이 없는가고 묻더구만.

대학을 졸업한 명남이는 공장에서 재간둥이로 떠받들리우고있소. 얼마전에도 무슨 기술혁신을 했다는데 그게 공장설비들을 현대화하는데서 큰 몫을 했다누만.

둘째 명일이도 일을 잘하고있소. 제련소에서 일한 년한은 길지 않지만 직장에서는 중요한 설비가공이 제기되면 그 애부터 찾는다는구만. 사위들도 공장에서 로력혁신자로 소문이 나는것 같소.

손자, 손녀애들도 얼마나 똘똘한지 공부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오. 두벌자식이 더 곱다고 그 애들을 보느라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소.

참, 평양에서 동생을 만난후 집 앞뒤뜰에 감나무를 여러 그루 심었소. 동생이 조국에 올 때면 생신한 감과 곶감을 맛보게 하려고 말이요. 자식들에게 의향을 비쳐보았더니 다들 좋다고 하더구만. 이제는 나뿐만이 아니라 자식들도 그렇고 손자, 손녀들도 거름을 준다, 어쩐다 하며 관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오.

동생, 올해 감이 익는 계절에 꼭 조국에 나왔으면 좋겠소. 그날 우리모두 감나무를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문호리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묘소를 찾아 성묘도 한다면 동생의 마음도 기쁘리라 보오.

지난해 2월에 로씨야 고통련대표단 성원으로 조국을 방문한 동생의 소식이 사진과 함께 실린것을 보고 온 집안식구가 얼마나 반가와했는지 모르오.

그때부터 더더욱 동생을 기다리는 우리들이요.

동생, 다음에 조국에 올 때는 혼자 오지 말고 제수랑 조카들이랑 다 같이 오오.

다시 만날 그날을 그리며 이만 쓰겠소.

동생도 이젠 일흔을 바라보고있는데 건강에 류의하길 바라오.

함경남도 단천시 금봉동
1인민반 리문선형으로부터

형님들에게 보낸 셋째의 전화

오화석녀성에게는 세 아들이 있다.

요즘 조선대학교에 다니는 그의 셋째아들 윤성수는 형님들한테서 오는 전화를 받고 생각이 많은 속에 나날을 보내고있다.

아이찌현에서 청년사업을 하고있는 맏형 일수와 후꾸시마에서 교원을 하는 둘째형 영수가 3.8국제부녀절을 맞는 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리겠는가 하며 전화를 걸어왔던것이다.

집안의 막내여서 형님들의 의향을 따르겠다고 말은 하였지만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와 제일 가까이에 있는 자기의 책임이 무척 크기에 그의 마음은 조급해졌다.

돌이켜볼수록 총련사업을 하면서도 세 아들을 모두 조선대학교에서 공부시키고 오늘은 동포사업에 떳떳이 내세운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이 그의 가슴속에 차넘치였다.

성수가 조선대학교에 입학하여 어머니곁을 떠나던 날 그처럼 다심하면서도 엄하던 어머니였지만 그만 눈시울을 적시였다. 아마도 셋째아들까지 품에서 내보내는것이 가슴아팠던것 같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자기의 감정과 달리 미소를 지으며 《꼭 공부를 열심히 하여 아버지, 어머니처럼 동포들을 위해 자기의 한생을 바쳐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어머니의 그 부탁을 가슴에 새기고 성수는 조선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였다. 그런데 몇년전 후꾸시마에서 녀맹사업을 하던 어머니가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선전부장사업을 하게 되면서부터 결국 형제들가운데서 성수는 어머니와 제일 가까이에 있게 되였다.

지나온 어머니의 한생을 돌이켜보는 성수에게는 지난해 11월 조국에서 열린 조선민주녀성동맹 제6차대회의 대표로 참가하였던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와 해준 이야기가 다시금 되새겨졌다.

조국에서 11월 16일은 어머니날이다. 조국에서 처음으로 어머니날을 맞는 오화석녀성은 아침식사시간에 식사보다 먼저 꽃송이를 받았다. 아름다운 꽃송이를 안겨주며 어머니날을 축하해주는 봉사원들의 살틀한 모습에서 그는 눈물을 지었고 조선로동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함께 4.25문화회관에서 경축공연을 관람하면서 녀성들을 위해주고 사회앞에 내세워주는 조국의 따사로운 사랑에 또다시 눈시울을 적시였다.

더우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머니라는 친근하고 다정한 부름에는 후대들을 위해 천만고생을 락으로 달게 여기며 사랑과 정을 바치는 녀성들에 대한 사회적존중과 높은 기대의 뜻이 담겨져있다고, 녀성들이 없으면 가정도 사회도 나아가서 조국의 미래도 있을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대회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시고 사랑의 선물을 안겨주시였으며 대회가 끝난 다음에는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였을 때 그는 자기가 과연 그이께서 바라시는대로 어머니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였는가 하고 다시금 돌이켜보았다고 한다.

그날 오화석녀성은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지금껏 자식들을 다 조국의 사랑속에 대학공부를 시키고 앞날에 대한 희망도 다 총련사업에로 지향시켰다. 그렇게 축구를 하고싶어하던 영수가 아버지의 뒤를 잇겠다고 교단에 설 때에도, 어느해 설날에는 자기의 인생관에 대해 말하면서 부모들이 이끌어주었기에 하면 할수록 보람있는 교육사업을 하고있다고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말할 때에도 그저 자식이 대견하다고만 생각하였었다. 그러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후대들을 키우는 어머니로서의 녀성들의 역할은 누구도 대신할수 없다고 하신 말씀을 전달받을 때 나는 한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것을 깨닫게 되였다. 나는 앞으로 꼭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는대로 후대들을 위한 녀성들의 역할을 더욱 높여나가는 길에서 뿌리가 되고 밑거름이 되겠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성수는 서둘러 전화를 들었다. 그리고 형님들에게 말하였다.

《자기가 맡은 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두는데 어머니의 기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사기자 유선화

아버지가 걸어온 길을 따라

대끝에서 대가 나고 싸리끝에서 싸리 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에 담겨진 깊은 뜻을 음미하여볼 때면 나는 자식의 건전한 성장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이 참으로 중요하다는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나의 작은 가슴속에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안겨준 아버지에 대한 추억에 잠겨보는 순간은 나에게 있어서 참으로 행복한 순간이 아닐수 없다.

나의 아버지의 고향은 함경북도 명천군이다. 아버지는 1950년 6월 25일 미제가 조선전쟁을 일으켰을 때 용약 총을 메고 고국으로 달려나가 싸웠다고 한다.

나와 형님은 어릴적부터 공화국기발을 펄펄 휘날리며 락동강까지 진격해나갔다는 아버지의 무훈담을 옛말처럼 들으며 자랐다.

아버지는 몸은 비록 해외에 있었지만 눈을 감는 순간에도 우리 자식들에게 통일의 그날을 보고싶다고, 이제는 너희들이 꼭 통일의 그날을 안아와야 한다고 절절히 당부하였다.

아버지가 전쟁시기에 받았던 공화국훈장과 메달들을 지금 우리 형님이 고이 간수하고있다.

민족을 사랑하고 고국의 통일을 갈망한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따르는것은 우리 자식들의 마땅한 의무이며 도리이기에 나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아버지의 고향인 함경북도 명천군에 여러번 찾아갔다. 아버지의 고향땅에 서고보니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것만 같았고 마치 아버지가 순간의 주저도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나라의 통일을 위한 길에 끝까지 서있으라고 나를 떠미는것만 같았다.

그래서 민족의 통일을 위한 일에 나의 적은 힘이나마 바치려고 애썼으며 지난해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중국지역준비위원회 통일자전거행진단에도 망라되였다.

그때 우리 통일자전거행진단 성원들은 민족의 거대한 힘으로 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갈 만만한 의지를 안고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으로부터 판문점까지 힘차게 달려나갔다.

통일자전거행진단 참가자들과 함께 판문점에 서서 남쪽땅을 바라보니 우리 겨레가 일일천추로 바라는 통일이 이룩될 날이 과연 언제일가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고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였다.

조종의 산 백두산에서부터 시작되여 한나산까지 면면히 하나의 지맥으로 잇닿아있는 삼천리강토에서 5천년의 력사를 자랑하며 살아온 우리 민족이 70년이 넘도록 분렬과 대결의 악순환속에 전쟁보다 더 가혹한 아픔을 강요당하고있다는것을 생각할수록 심장이 터지는것만 같았다.

그래 무엇때문에 우리 민족이 분렬민족으로 남아있어야 하며 우리 민족은 언제까지 분렬의 아픔속에 시달려야 하는가.

판문점을 돌아보며 나는 민족의 분렬이 지속될수록 우리 겨레가 당하는 고통과 조선반도의 전쟁위험은 나날이 커지게 된다는것을, 하루빨리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것을 더욱 명백히 깨닫게 되였다.

온 겨레는 자기의 운명을 민족과 직결시키고 사상과 리념, 주의주장을 초월하여 민족대단합의 길에 적극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나는 통일의 새봄을 안아오는 그날까지 마음속의 통일자전거행진을 멈추지 않을것이며 바로 그 길에 나의 아버지와 함께 있을것이다.

중국 길림성 조선족진흥총회
회장 오장권

인상기

한평생 간직하고 살겠다

나에게는 간절한 마음속 소원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단 한번만이라도 몸가까이에서 뵈옵는것이였다.

그처럼 바라고바라던 그 소원을 나는 지난해 조선민주녀성동맹 제6차대회에 참가하여 성취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슬하에 있는 자식보다 멀리에 있는 자식을 더 위하는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우리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대표단도 대회에 참가하도록 은정과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대회가 진행되는 전기간 나는 혹시 경애하는 원수님을 만나뵈올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머리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마 나뿐이 아니라 우리 해외동포들, 대회에 참가한 대표들모두가 같은 심정이였을것이다.

그런데 그 간절한 소원이 풀릴줄이야…

기념사진촬영장에 나오시는 그이를 뵙는 순간 나는 눈물을 쏟고야말았다. 그이의 영상을 마음속에 간직하려고 애써 눈물을 닦았지만 눈물은 걷잡을수 없이 계속 흘러내렸다. 그이의 모습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모습 그대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조선녀성운동은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여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고있다.

태양의 품이 있어 우리 조선녀성들의 보람찬 삶도 존엄도 있음을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잘 알고있는 나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였던 그날의 영광과 긍지를 한평생 간직하고 앞으로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겠다.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리순희

자그마한 힘이라도 보태고싶어

나는 지난해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중국지역준비위원회 통일자전거행진단에 망라되여 조국을 방문하였다.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앞에서 출발한 통일자전거행진단 성원들속에는 나의 안해와 어린 두 아들도 함께 있었다.

그들은 조국에 대하여 아는것보다 모르는것이 더 많다.

사실 나는 안해와 자식들에게 조국의 소식에 대하여 자주 알려주군 한다. 하지만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 안해에게 조국에 가서 눈으로 직접 조국의 현실을 보고 또 조국의 통일을 위한 자전거행진에 아들들도 함께 참가하는것이 어떻겠느냐고 의향을 비쳤더니 그가 대뜸 찬성하는것이였다. 아들들도 못내 기뻐하며 따라나섰다.

판문점앞에 섰을 때 나의 마음은 참으로 아팠다. 안해와 자식들도 같은 심정이였다. 그들은 조국통일은 온 민족의 한결같은 념원이고 전민족이 노력하면 반드시 실현될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전민족적인 투쟁에 우리 가정의 자그마한 힘이라도 보태며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자고 약속하였다.

말이 통하고 정이 통하는 우리 민족끼리 마주 모여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행복의 날, 기쁨의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날을 앞당겨오기 위해 나는 열정을 아끼지 않겠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김용찬

조국이 안겨준 조선녀성의 긍지와 자부심

참가자
김영희: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국장
김순자: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길림성 화룡시지부장
장봉해: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회원
연 옥: 본사기자

기자: 안녕하십니까. 조선민주녀성동맹 제6차 대회에 참가한 여러분들을 축하합니다.

김영희: 감사합니다. 정말이지 지금 우리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녀성일군대표단의 전체 성원들은 영광의 대회장으로 불러준 조국의 고마움에 눈시울을 적시며 조선녀성으로 태여난 기쁨과 감격에 목메여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그처럼 정담아 불러주신 훌륭한 녀성혁명가들의 대부대에 바로 해외에 사는 우리 재중동포녀성들도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든든하고 조선녀성이 된 긍지가 가슴에 막 차오릅니다.

김영희

김순자: 지난날 천대와 수난의 대명사였던 조선녀성들이 부강조국건설에서 한몫을 당당히 맡아하는 강위력한 력량으로 자라나 위용떨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이 있었기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한평생 녀성들을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으로 내세우시고 그들의 자주적존엄과 참다운 삶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습니다. 하여 우리 조국에서는 지난날 정치적무권리와 사회적불평등, 봉건적구속과 멸시속에서 헤매이던 녀성들의 운명과 지위, 사상정신적풍모와 역할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으며 조국땅우에 녀성존중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되였습니다.

장봉해: 넓고넓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녀성들이 살고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남자들과 꼭같은 의무와 권리를 가지지 못하고있을뿐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사회의 진보를 위하여 자기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에서 녀성들은 남자들과 꼭같은 시간, 꼭같은 일을 하고서도 남자들보다 적은 로임을 받아야 하는가 하면 당장 몸을 풀어야 할 녀성들이 돈이 없어 병원문앞에도 못 가보고 목숨을 잃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국에서는 세상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녀성존중의 력사가 흐르고있습니다.

제가 조국에 올 때마다 직접 보고 느끼는바이지만 우리 조국에서는 온 나라 어머니들의 정치적생명으로부터 생활상문제에 이르기까지 따뜻이 보살펴주고있으며 그들이 이룩한 자그마한 소행도 값높이 평가하고 내세워주고있습니다. 평범한 녀성들이 시대의 영웅으로, 공로자로, 혁신자로 보람찬 삶을 누리고 나라의 부강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하는 애국녀성으로 살며 일하고있습니다.

김순자

김순자: 그뿐이 아닙니다.

조국땅 이르는 곳마다에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탁아소와 유치원, 병원, 산원들이 훌륭히 일떠섰으며 자식들을 많이 낳아 키운 어머니들이 모성영웅으로 떠받들리우고있습니다.

우리 녀성들의 이 두손은 남성들에 비해볼 때 얼마나 작고 연약합니까.

그러나 조국의 녀성들은 그 작고 연약한 두손으로 자식들을 키우고 가정을 돌보면서도 사회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바쳐가고있습니다.

이번 대회의 휴식시간에 저는 우리 뒤줄에 앉았던 조국의 녀성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강도 희천시에서 온 그들은 지난 기간 희천발전소건설에 자신들의 모든것을 깡그리 다 바치였다고 합니다. 그들의 손을 쓸어보고 또 쓸어보며 저는 (얼마나 작고도 큰손인가.)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자식들의 어머니로뿐아니라 한가정의 주부, 나아가서 공민으로서의 자각을 깊이 새기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길에 온몸이 밑거름이 되고 뿌리가 되고있는 조국녀성들의 그 헌신의 세계는 우리 해외동포녀성들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었습니다.

기자: 예, 그렇습니다. 우리 녀성들처럼 사회주의를 생명으로, 생활로 여기는 녀성들, 모진 고난과 시련도 달게 여기며 사회주의대가정을 지키고 빛내여온 녀성들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을것입니다.

우리 조국에는 수십년간 도로관리원으로 일하면서 자식들도 모두 도로관리원으로 내세운 어머니도 있고 한생을 바쳐 나라의 농업발전에 이바지한 녀성과학자도 있으며 인적드문 산중에서 남편과 함께 누가 알아주건 말건 조국의 푸른 숲을 가꾸어가는 보석과 같은 마음을 지닌 애국자도 있습니다.

장봉해

일심단결의 거대한 위력으로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를 쟁취할데 대한 당(조선로동당)의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그곳으로 달려나간 어머니들과 공장, 농촌, 어촌들에서 증산으로 낮과 밤을 보내는 어머니들, 피해지역 인민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지성어린 지원물자를 보내준 어머니들을 다 꼽자면 끝이 없습니다. 이런 녀성들의 미덕의 향기가 차넘치기에 우리 조국땅우에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고 일심단결된 우리 사회의 대풍모가 더욱 활짝 꽃펴나고있는것입니다.

김영희: 정말이지 조국의 녀성들의 그 높은 정신세계를 우리 해외동포녀성들도 따라배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재중조선인총련합회만 놓고보아도 련합회성원들의 절반이상이 녀성들입니다.

녀성들과의 사업을 잘하여야 동포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해나갈수 있기에 총련합회에서는 각 지부들에서 3. 8국제부녀절과 어머니날을 뜻깊고 의의깊게 보내도록 조직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홀로 사는 로인들을 양로원에 보내는 문제, 젊은 녀성들이 부모들을 잘 모시도록 하는 문제, 생활이 어렵다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녀성들을 교양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동포녀성들과의 사업을 보다 진지하게 구체적으로 진행해나가고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조국의 녀성들과 꼭같이 기념사진을 찍은 이 영광을 가슴에 간직하고 몸은 비록 해외에서 살고있지만 조국이 안겨준 조선녀성의 긍지와 자부심을 언제나 깊이 새기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조국의 부강번영에 참답게 이바지해나가겠다는것을 다시한번 결의다집니다.

기자: 오늘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어 감사합니다.

(이 좌담회는 2016년 11월에 진행한것임.)

조선속담 (속마음)

- 굼벵이가 지붕에서 떨어질 때는 생각이 있어서 떨어진다

아무리 미련하고 우둔한 사람도 무엇을 할 때에는 제딴에 무슨 궁리가 있어서 한다는것을 비겨 이르는 말.

- 벙어리속은 벙어리가 안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야 그 마음을 알수 있다는것을 비겨 이르는 말.

- 상시에 먹은 마음 꿈에도 있다

평상시에 늘 생각하던 일이 꿈에도 나타난다는 뜻으로 굳게 먹은 마음이나 골똘히 생각하는 일은 언제나 자기 머리에서 떠나지 않음을 이르는 말.

- 접시(에) 밥도 담을탓

① 접시의 밥도 담는데 따라 많이도 담을수 있고 적게도 담을수 있다는데서 어떤 일이나 주관하는 사람의 마음쓰기나 솜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짐을 비겨 이르는 말.

② 불리한 조건이라 하지만 일이 잘되고 안되는것은 결국 하는 사람의 마음먹기에 달렸음을 비겨 이르는 말.

-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사람의 속마음을 알기란 매우 힘들다는것을 비겨 이르는 말.

- 후 생각이 우뚝하다

후에 생각한것이 먼저 생각한것보다 나을 때에 이르는 말.

* * *

민족의 향기

건강과 장수를 원한다면 인삼차를…

얼마전 저는 평양고려호텔앞에서 안면이 있는 재미동포 신영순녀성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서로 반가움을 감추지 못하며 호텔안에 있는 차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무슨 차를 들겠는가고 묻자 그는 인삼차가 제일 좋다며 미소를 지어보이는것이였습니다.

봉사원이 우리앞에 가져다놓은 차잔에서는 누르스름한 빛갈의 인삼차가 연한 김을 피워올리고있었습니다.

우리는 약속이나 한듯 인삼차를 반모금정도 마시였습니다. 그러자 인삼향기가 코를 간지럽히고 독특한 맛이 혀끝을 자극하더니 이름할수 없는 기운이 온몸에 퍼져나가는것만 같았습니다.

동포녀성은 차잔을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곳에서도 고국의 인삼차가 인기를 모으고있습니다.》

그러자 저는 《세상에 생명의 뿌리, 약초의 왕으로 널리 알려져있는 개성고려인삼인데 그럴수밖에요.》라면서 그의 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화제는 저도 모르게 개성고려인삼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기에 담아보겠습니다.

인삼은 예로부터 맑은 아침의 나라로 불리운 조선의 전통적인 약재들가운데서 첫손가락에 꼽혀왔습니다.

인삼이란 말은 뿌리모양이 사람의 모습을 닮았다는데로부터 유래되였습니다. 인삼재배는 고려때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였는데 특히 개성지방이 특이한 토질과 수질, 날씨조건으로 하여 고려인삼의 원산지로 이름을 날리게 되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력사에는 늙은 부부가 인삼을 먹고 다시 젊어져 부부의 정을 마음껏 누리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비롯하여 인삼과 관련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수많이 전해져내려오고있습니다.

오랜 력사와 더불어 장생불로약으로 사람들과 매우 친숙해진 개성고려인삼제품들은 과학과 기술이 발전한 오늘날에도 천연건강식품으로 첫손가락에 꼽히우고있습니다.

저의 말을 듣고난 동포녀성은 《기자선생이 인삼박사인줄 내 미처 몰라보았습니다.》라고 우스개소리를 하면서 개성고려인삼이 어떻게 되여 그러한 약효능을 가지는가고 물어보는것이였습니다.

저는 개성고려인삼은 40여종의 인삼사포닌배당체를 가지고있는데 모든 사포닌배당체들이 조화롭게 들어있다는것이 다른 종류의 인삼들과 차이나는 점이라는것과 그외에도 인삼정유, 필수아미노산류, 각종 비타민류, 광물질을 비롯하여 생체기능조절과 로화방지, 생체방어능력과 정신육체적활동능력을 비상히 높여주는 각종 약효성분이 있다는것, 인삼차는 우리 나라의 이름난 개성특산인 6년생 고려인삼의 주요성분을 전통적인 방법과 최신과학기술의 방법으로 추출하여 만든 건강식품이라는데 대하여 말해주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다 듣고난 동포는 오늘 개성고려인삼에 대하여 잘 알게 되였다고 하면서 이제부터는 더욱 새로운 의미를 안고 인삼차를 마시겠노라고 하였습니다.

동포여러분, 세상에는 유명한 차들이 많지만 아마도 그것들은 인체의 면역기능을 증대시키고 저항력을 높이며 기를 돋구고 몸을 튼튼하게 하여 건강과 장수를 담보하여주는 개성고려인삼차에는 비하지 못할것입니다.

조국의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에서는 개성지방에 대규모의 인삼생산기지와 국제적인 GMP기준에 부합되는 현대적인 공정들과 설비들이 갖추어진 전문적인 인삼가공공장을 두고 효능이 높은 개성고려인삼과 인삼차를 비롯한 특색있는 50여가지의 제품들을 생산하여 국내에 출품하는것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에도 수출하고있습니다.

동포여러분,

한잔의 인삼차가 우리에게 주는 여운은 참으로 컸습니다.

그것은 조국의 기름진 토양과 맑은 공기속에서 깨끗한 물을 빨며 자란 개성고려인삼 하나만을 놓고서도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 애국주의정신을 가슴에 다시한번 안아보게 되기때문이였습니다.

기쁨과 행복, 건강과 장수를 원하는분들이라면 인삼차를 즐겨드실것을 저는 진심으로 권고합니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최은혁

력사인물

애국적시인 리제현

고려시기의 문인이며 정치가였던 리제현(1287년-1367년)은 어려서부터 성품이 의젓하였으며 글을 잘 지어 장차 이름을 낼 문인으로 인정되였다.

후에 우정승, 문하시중의 벼슬을 하였다.

리제현은 젊은 시절 원나라에서 고려정부의 대변인역할을 하면서 중국의 이름있는 학자, 문인들과 접촉하게 되였다. 그는 이러한 생활과정에 조국에 대한 그리움, 조국애의 감정을 가지게 되였으며 큰 나라에 굴종하는 봉건통치배들의 사대주의에 대하여 어느 정도 비판적립장에 서게 되였다.

시 《북쪽으로 가며》, 《동지날》, 《9월 8일 고향 송경에 부치노라》를 비롯하여 이국살이과정의 체험을 노래한 그의 시들에는 시인의 애국주의사상감정이 표현되여있다. 특히 시 《고향에 돌아가고파》와 《장안려관에서》는 날이 갈수록 짙어지는 조국에 대한 생각과 민족생활풍습에 대한 애착, 조국의 력사와 문화에 대한 긍지를 절절히 노래한것으로 하여 대표적작품으로 알려져있다.

리제현의 미학적견해에서 중요한것은 작품의 내용과 형식, 작가의 체험과 창작실천에 대한 문제이다. 그는 《시라는것은 뜻이 가는바니 마음에 품은것이 뜻으로 되고 그것을 말로 나타내면 시로 된다.》고 하였으며 《보는바가 크면 이루는바도 높고 체험하는것이 열렬하면 지키는바가 확고하다.》고 하면서 작가는 생활을 깊이 탐구하여야 좋은 작품을 쓸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미학적견해와 애국주의적생활지향으로부터 리제현은 민간소재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였고 창작에서는 민족적정서가 짙은 시가작품들을 많이 썼다.

시인의 진보적인 미학견해와 생활정서는 시 《전록생을 보내며》를 비롯하여 당대의 가혹한 현실을 비판하고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동정을 표시한 작품들에서 표현되고있다.

시 《사리화》에서 그는 비지땀을 흘려가며 한해동안 애써 농사지은 낟알을 량반들에게 깡그리 빼앗긴 농민들의 울분과 황폐화된 당시 농촌전경을 생동한 시적형상으로 그렸다.

리제현은 이밖에 《력옹패설》과 같은 산문도 썼다. 여기에는 력사적산문, 전기적산문, 구전설화, 시론 등이 담겨져있다.

그는 말년에 고려의 력사를 편찬하는 사업에도 참가하여 많은 글을 남겼다. 그는 고려말기의 재능있는 시인으로서 그의 문학적재능은 일찌부터 국내는 물론 다른 나라에도 널리 알려졌으며 그의 진보적경향의 시들은 이 시기 문학사에서 뚜렷한 자리를 차지한다. 문집으로 《익재집》(15권)이 전해지고있다.

* * *

조국의 천연기념물 (3)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 자리잡고있는 량강도에는 20여가지의 천연기념물들이 분포되여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량강도의 천연기념물들가운데서 백두산조선범, 풍산개, 삼지연사슴, 삼지연누렁이, 삼지연검은돈, 삼지연메닭, 백암사슴, 백암검은돈, 백암쥐토끼, 신파닭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백두산조선범은 남북포태산과 대홍단군의 두지바위일대와 대로은산 등지에서 서식하고있습니다.

조선범은 용맹하고 잘 생겨 세상에 널리 알려진 동물로서 몸길이는 180㎝정도이고 키는 약 100㎝이며 몸무게는 140~200㎏정도입니다.

앞다리의 힘이 특별히 세고 네발에는 강한 발톱이 있는데 이것으로 먹이를 그러잡습니다. 털색갈은 선명한 누런 밤색이며 이마에서 대가리꼭대기에 이르는 부분에 임금왕자(王)모양의 검은 무늬가 뚜렷하고 잔등에는 24개, 배에는 5개의 검은 줄이 가로 나있으며 꼬리에는 8개의 검은 고리무늬가 있습니다.

조선범은 국제적인 특별보호대상동물이므로 조국에서는 그 서식지인 이 지대의 생태환경을 적극 개선하고 보호하고있습니다.

풍산개는 우리 나라의 고유한 품종이고 세계적으로 령리한 개로 알려져있는 특산종입니다. 오래전부터 김형권군(이전의 풍산군) 광덕리를 중심으로 한 갑산과 풍서일대에서는 풍산개를 사냥개로 많이 리용하여왔습니다.

조국에서는 풍산개의 마리수를 늘이고 순종을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삼지연사슴은 백두산줄기의 소백산 남동비탈면과 남쪽 및 남서비탈면의 넓은 구역에서 서식하고있습니다.

삼지연에서부터 베개봉을 거쳐 삼포산에 이르는 이 일대는 부석층이 두텁게 깔려있고 경사가 완만하며 리명수와 소백수의 상류가 여러 갈래로 흘러내리고 이깔나무, 분비나무, 봇나무, 사스레나무, 들쭉나무, 만병초 등이 자라고있어 사슴의 서식지로서는 매우 적합합니다.

사슴은 세계적으로 아시아동부의 제한된 지역에만 분포되여있는데 개체수가 급속히 줄어들어 국제적인 보호동물로 등록되여있습니다. 이 지대에서는 사슴의 서식과 개체무리보호에 특별한 주의를 돌리고있습니다.

삼지연누렁이는 간백산, 선오산, 소연지봉, 무두봉, 대각봉일대의 해발 1 500m이상 되는 산들의 경사가 완만한 지역에서 서식하고있습니다.

누렁이는 봄부터 가을까지 공지가 많고 앞이 트인 지대와 산림한계선을 벗어난 넓은 풀판에서 먹이활동을 합니다. 겨울이 닥쳐오면 이 지대에는 바람이 세차고 눈이 많이 쌓이므로 아늑한 곳을 찾아 이동합니다.

누렁이는 세계적범위에서 개체수가 급속히 줄어들고있어 국제보호동물로 등록되여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누렁이서식지의 하나인 삼지연일대의 생태환경과 개체무리보호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있습니다.

삼지연검은돈의 표식주는 량강도 삼지연군 포태로동자구의 안자이골릉선에 있습니다. 동북방향으로 남포태산이 솟아있고 높고낮은 산들이 둘러싸여있는 이 지대는 검은돈의 보호구역입니다.

검은돈은 이 지대의 곳곳에 형성되여있는 돌무지와 나무뿌리밑에 거처지를 정하고있습니다.

검은돈의 살이터와 개체무리는 적극 보호되고있습니다.

삼지연메닭은 삼지연읍에서 북쪽으로 12㎞정도 떨어져있는 간삼봉을 중심으로 퍼져있습니다. 메닭은 백두고원의 높은 산림지대에만 분포되여있으며 생긴 모양이 곱고 색이 아름다와 관상적가치와 자연풍치를 돋구어줍니다. 메닭은 주로 들쭉, 산딸기 같은 떨기나무열매, 풀씨, 벌레 등을 먹습니다.

백암사슴은 백암지방의 초원과 밀림에 퍼져 살고있습니다.

사슴들은 나무가 빽빽하지 않고 공지와 풀판이 많은 앞이 트인 지대를 따라 4~5마리씩 무리지어 활동하고있습니다.

백암검은돈은 량강도 백암군 박천로동자구일대에 있는 천연기념물입니다. 그곳은 우리 나라에서 검은돈의 마리수가 많은 지역들중의 하나로 되고있습니다. 검은돈은 우리 나라 특산아종이고 세계적으로 으뜸가는 고급털가죽짐승으로서 그 리용가치가 높습니다.

백암쥐토끼는 서두수상류의 해발 1 600m이상 되는 지역에 퍼져있습니다.

주로 돌짬이나 나무뿌리밑에서 사는데 저녁해질무렵이나 비내린 다음날 아침 해퍼지는 시간에 무리로 굴앞에 나와있습니다.

신파닭은 김정숙군(이전의 신파군)일대에서 오래전부터 길러오던 토종닭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52(1963)년 8월에 이 닭의 이름을 《신파닭》이라고 지어주시였습니다.

현재 김정숙군 장항리에서는 신파닭의 순종을 보존하고 그 마리수를 늘여나가고있습니다.

조선자연보호련맹 중앙위원회
연구사 김지향

백암쥐토끼

삼지연검은돈

백암검은돈

백두산조선범

삼지연누렁이

삼지연사슴

풍산개

개성의 력사유적을 찾아서 (4)

- 경효(공민)왕릉 -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개성의 력사유적들가운데는 고려 31대 왕인 경효(공민)왕의 무덤도 있습니다. 개성시 해선리에 있는 경효왕릉은 현릉(경효왕의 무덤)과 정릉(왕비의 무덤)이 나란히 있는 쌍무덤으로서 1365년-1372년에 경효왕자신이 직접 감독하면서 인민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만든것입니다.

개성시를 중심으로 주변 약 6~8km범위에는 고려 력대 왕들과 왕비, 왕족들의 무덤이 많은데 특히 송악산 북쪽과 개성의 서쪽인 만수산의 남쪽언덕일대에는 20여기나 있습니다. 경효왕릉은 이 무덤들의 서쪽 맨 끝에 자리잡고있습니다. 무덤은 무선봉의 나지막한 산중턱에 남쪽을 향하여 놓여있습니다. 경효왕릉의 무덤구역은 동서로 긴 장방형의 세 층단과 그 아래에 비탈진 넓은 층단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제1층단의 크기는 동서 40m, 남북 24m이며 현릉과 정릉은 제1층단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무덤무지의 높이는 약 6.5m이며 그 대각직경은 13.7m인데 병풍돌들의 면돌에 부각한 12지신상은 짐승의 대가리를 얹고 구름을 탄 모양으로 형상하였습니다. 갑돌, 바닥돌, 당김돌에도 꽃무늬를 아로새겼습니다.

무덤앞에는 큰 북모양으로 된 받침돌을 받쳐놓은 상돌이 있는데 그 길이는 3.36m, 너비는 1.82m, 두께는 0.45m입니다.

무덤의 앞면 좌우끝에는 6각으로 된 키높은 망주석이 있습니다. 무덤의 둘레에는 빙 돌아가며 양과 범을 형상한 돌조각을 서로 엇바꾸어놓았습니다. 제2층단은 제1층단보다 1.2m 낮게 남북 6m, 동서 46.5m로 마련하고 오르내리는 돌계단을 앞면가운데에 2개, 량옆에 1개씩 4개 만들었습니다. 앞면돌계단 바로 앞에는 석등을 1개씩 세워놓았습니다. 제2층단의 좌우끝에는 네상의 문관조각이 있고 제3층단의 좌우끝에는 네상의 무관조각이 세워져있습니다. 제3층단의 크기는 제2층단과 같은데 그보다 14m 낮게 놓여있습니다. 층단으로 오르내리는 돌계단은 앞면가운데와 좌우에 각각 1개씩 3개 냈습니다. 제3층단에서 복판과 옆면에 낸 돌계단으로 내려서면 경사층단인데 밑의 제사터까지의 경사거리는 23m, 그 수직높이는 10m입니다. 경사층단에는 드문드문 석축담을 쌓아 흙이 흘러내리는것을 방지하였습니다. 경사층단앞 평지에는 정자각터가 있고 여기에서 동쪽으로 조금 떨어져서 광통보제선사비가 서있습니다.

현릉의 무덤칸은 무덤안길과 안칸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안칸의 평면은 동서 2.97m, 남북 3m이며 높이는 2.29m인데 안칸은 질좋은 화강암판돌로 쌓고 평천정을 얹었습니다. 무덤안길은 안칸 남쪽벽가운데에 냈는데 그 길이는 9.1m, 너비는 2.04m, 높이는 1.82m입니다. 안칸 동, 서, 북 세 벽면과 천정에는 벽화를 그렸는데 세 벽면의 벽화는 모두 12지신그림입니다. 이 그림들은 각 벽면에 네상씩 배렬되여있습니다. 천정에는 북쪽에 북두칠성을, 남쪽에 한쌍의 삼성을 그렸으며 북두칠성의 동남쪽에 해를 그렸습니다.

1905년이후 일제는 여러차례에 걸쳐 경효왕릉안의 유물들을 모조리 도적질하여갔습니다.

이 무덤의 사치스러움은 국도에 이르러 이것을 만드느라 국고가 말라 텅 비였다고 합니다. 경효왕릉의 무덤형식은 고려말기의 릉형식을 대표하는것이며 그것은 조선봉건왕조시기에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문관조각들과 무관조각들은 지금 남아있는 우리 나라 옛 돌조각예술작품가운데서 가장 우수한것의 하나입니다. 경효왕릉무덤은 고려때 선조들의 재능을 보여주는 국보적유적으로 보존관리되고있습니다.

주체81(1992)년 5월 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경효왕릉을 돌아보시고 왕릉의 문관과 무관, 돌조각상과 석등, 망주석도 잘 만들어 세웠다고 교시하시였습니다.

글 본사기자 유선화
사진 본사기자 박창복

사 화

김생의 신비한 필체

12세기초 고려의 학사 홍관이 사신을 따라 송나라 수도에 갔을 때였다.

한 관청에 이르니 그곳에서 마침 이름있는 학자들이 모여앉아 족자에 글씨를 골라가며 쓰고있었다. 이것을 흥미있게 구경하던 홍관은 가슴에 품고갔던 책 한권을 내보였다.

《미안하지만 이 글체를 한번 보아주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김생(711년-?)이 쓴 행시와 초시를 모아묶은 책이였다.

송나라학자들은 그 글체를 보고 모두 감탄하였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요? 우리가 오늘 당신에게서 왕희지의 필적을 얻어보게 되다니. 참으로 기쁜 마음을 표할길이 없습니다.》

왕희지는 중국의 이름난 서예가였다.

그들의 말을 듣고 빙그레 웃고난 홍관은 《그것은 왕희지의 필적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나라의 400년전 사람인 김생의 글체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 아니요. 천하에 왕희지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처럼 훌륭한 글씨를 쓸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며 믿지 않았다.

그리하여 홍관은 김생이 어떤 사람이였는가를 이야기하여주었다.

《김생은 미천한 가정에서 태여났으나 어렸을 때부터 글씨를 잘 썼으며 일생 다른 학문은 하지 않고 80고령에도 필법을 연구하였습니다.

김생은 자기의 필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산속의 석굴에 들어가서 40년이나 나오지 않았답니다. 그 산에 떨어지는 모든 가랑잎에는 그의 글씨가 씌여졌으며 그것이 강으로 떠내려가 강물은 언제나 까맣게 흐려있었답니다.》

이런 말을 듣고서도 그들이 반신반의하기에 홍관은 그 책에서 어느 한 비문에 김생이 자기 이름을 쓴 대목을 펴보이였다. 그제야 그들은 머리를 끄덕이였다.

《김생의 필체는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천하에 더 견줄만 한 이가 없는 이런 서예가가 당신네 나라에 있었다는것을 아직 모르고있은 우리가 수치입니다.》

그들은 저저마다 많은 값을 주겠으니 책을 달라고 청하였다.

홍관은 선물로 가져온것이니 거저 주겠다고 하였다. 그들은 모여들어 책을 뜯어 저마다 한장씩 나누어가지고는 귀한 보물처럼 싸가지고 갔다.

* * *

동방문화의 개화발전에 기여한 고구려의 기술

우리 나라의 첫 봉건국가였던 고구려에서는 선진적인 사회경제제도에 기초하여 생산력이 빨리 발전함에 따라 기술분야에서도 많은 전진이 이룩되였다.

그가운데서 제철제강기술과 금속가공기술이 매우 발전하였다.

고구려에서는 다른 나라에 철을 수출할 정도로 많은 철제품들을 생산하였다. 여러 유적들과 유물들을 통하여 고구려는 초기부터 1 540℃의 높은 온도에서 완전용융상태의 강철을 얻어냈다는것을 알수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가 세계적으로도 고온야금법에 의한 주강생산발상지의 하나라는것을 말해준다. 유럽에서 고온야금법에 의한 제철제강법이 개발된것은 13~14세기였다고 한다.

금속가공기술의 우수성은 복잡한 모양의 정밀주조품들과 여러가지 도구로 금속표면에 조각을 하는 조금기술, 천수백년동안 땅속에 파묻혀있어도 본래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높은 도금기술이 적용된 여러가지 공예품들을 통하여 잘 알수 있다.

고구려사람들은 압연하기 헐치 않은 강철도 능숙하게 압연하였는데 2㎜의 두께로 압연한 강철패쪽으로 철갑옷과 투구를 대량적으로 만들어 사람은 물론 말까지도 입히였다. 기마무사와 말이 철갑옷으로 완전무장한 기병을 《철기》라고 불렀다. 고구려는 246년에 있은 반침략투쟁에 무려 5 000기에 달하는 철기를 동원하였다.

오늘날에도 쉽지 않은 두가지 금속을 맞붙이는 기술을 고구려사람들은 벌써 천수백년전에 그 기술을 터득하고 화살촉 제작 등에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고구려에서는 건축기술도 높은 수준에서 발전하였다. 그것은 왕궁, 사찰, 성곽, 다리, 무덤 등 여러 건축유적들을 통하여 엿볼수 있다.

안학궁과 대동강고구려나무다리는 고구려사람들의 높은 목조건축기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민족문화유산이다. 5~6세기 고구려왕궁인 안학궁은 총 부지면적 약 38만㎡, 총건평 3만 1 458㎡나 되며 세계적으로도 큰 목조건물인 중궁(길이 87m)을 비롯하여 덩지큰 건축물들로 이루어져있었다.

길이 약 375m, 너비 약 9m나 되였던 대동강고구려나무다리는 당시 우리 나라에서뿐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가장 오래고 큰 다리중의 하나이다. 다리골조로 대부분 길이 8~10m, 너비 38㎝, 두께 26㎝되는 굵은 나무각재를 사용하였는데 못이나 꺾쇠같은 쇠붙이를 전혀 쓰지 않고 크고작은 모든 이음새들을 사개물림하는 방법으로 든든하게 련결시켰다.

고구려사람들의 높은 건축기술은 계단돌칸무덤들인 태왕릉(한변의 길이 63m, 7단), 장군무덤(한변의 길이 34m, 높이 13m, 7단) 등과 나라를 보위하기 위하여 평지와 산지대에 쌓은 1 000개이상에 달하는 성곽들을 통하여서도 알수 있다.

다음으로 고구려에서는 방직 및 염색기술도 상당한 정도로 발전하였다.

평양시 대성산일대에서는 실오리가 고르롭고 천의 평활도가 높은 누에고치실로 짠 천쪼각이, 중국의 집안에서는 꽃무늬를 놓은 매우 정교한 비단쪼각이 발견되였다. 이것은 당시 고구려의 천짜기기술수준이 얼마나 높은 지경에 있었는가를 잘 보여준다.

고구려사람들은 여러가지 우수한 방법으로 천에 물감을 들이거나 무늬를 놓아 옷을 민족적미감에 맞게 해입고다니였다. 귀족들뿐만아니라 평민들도 여러가지 색갈과 문양의 옷을 입고있는것을 형상한 무덤벽화들을 통하여 고구려의 발전된 염색기술을 잘 알수 있다.

이밖에도 요업기술, 무기제작기술, 항해기술을 비롯하여 다른 많은 기술부문들도 당시로서는 높은 발전수준에 있었다.

고구려의 발전된 기술은 백제, 신라를 비롯한 삼국시기 동족의 나라들과 주변나라들의 기술발전에 이바지하였으며 그 영향은 후세시기에도 깊은 여운을 남기였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김명일

북남관계개선은 평화와 통일의 출발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강령적지침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북과 남사이의 첨예한 군사적충돌과 전쟁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북남관계개선은 나라의 평화를 이룩하고 조국통일위업을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출발점이며 온 겨레의 절박한 요구이다.

북과 남은 반만년의 유구한 세월 하나의 강토에서 한피줄을 잇고 살아온 한민족이며 평화와 통일의 동반자이다.

외세에 의한 국토량단의 후과를 가시고 민족만대의 번영을 이룩하는데서 북과 남이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것은 천만번 당연하다.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서로간에 불신과 대립, 긴장과 격화의 상태를 계속 고집한다면 나라의 평화는 물론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도 실현할수 없다.

나라의 평화와 통일은 바란다고 하여 저절로 오는것도 아니며 그 누가 해결해주기를 앉아 기다릴 문제도 아니다. 북과 남사이에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고 신뢰와 협력의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마련하는데 나라의 평화번영과 자주통일을 위한 기본열쇠가 있다.

온 겨레는 바로 그것을 북남관계개선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운동사에 평화와 번영의 한페지를 뚜렷이 아로새긴 6. 15통일시대를 통하여 페부로 절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통일애국의지와 대용단에 의하여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두차례의 북남수뇌상봉이 실현되고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핵으로 하는 6. 15북남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 4선언이 채택발표된것은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나라의 평화번영을 이룩하고 자주통일의 력사적리정표를 마련하는데서 특기할 사변이였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건 통일애국의 길로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으로 하여 북남관계에서는 커다란 전진과 발전이 이룩되였으며 조국통일의 려명이 바야흐로 밝아오게 되였다.

그러나 절세위인께서 품들여 마련하여주신 북남관계는 외세의 악랄하고도 집요한 반공화국적대행위에 추종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압박과 북침전쟁소동에 매여달린 남조선당국에 의하여 전례없는 파국상태에 들어섰다.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공화국의 자위적인 핵억제력강화조치와 합법적인 우주개발활동을 그 무슨 《결의위반》이니, 《도발》과 《위협》이니 하고 걸고들면서 위험천만한 군사적대결책동에 매달렸으며 북남협력의 마지막상징이였던 개성공업지구마저 전면페쇄하여 북남관계를 완전히 결딴내였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통일을 향하여 한걸음도 나아갈수 없게 하고 나중에는 전쟁의 소용돌이속에 말려들어 참혹한 재난을 당하게 하려는 극히 위험한 행위로서 조국의 통일과 평화번영을 바라는 해내외 온 겨레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파국상태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그대로 두고 어떻게 나라와 민족의 평화번영과 통일을 이룩할수 있겠는가.

동족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관계를 개선하여 겨레의 안녕과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려는 우리 공화국의 립장은 일관하다.

남조선당국은 상대방을 자극하고 대결을 고취하는 온갖 비방중상을 철회하며 제도전복과 《변화》에 기대를 걸고 감행되는 불순한 반공화국모략소동과 적대행위들을 지체없이 중지하여야 한다. 또한 무력대고 공화국의 자위적행사들에 대해 걸고들면서 정세를 격화시킬것이 아니라 북남간의 군사적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공화국의 진지한 노력에 화답해나서며 무력증강책동과 전쟁연습소동을 벌려놓는 놀음을 걷어치워야 한다.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치면 이 세상에 무서울것도 없고 못해낼 일도 없다.

전체 조선민족은 력사적인 7. 4공동성명발표 마흔다섯돐과 10. 4선언발표 열돐이 되는 올해에 북남관계에서 근본적인 개선을 이룩함으로써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아침을 반드시 안아와야 할것이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리철

야화

총석을 만든 오누이

금강산 해금강의 총석정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있다.

옛날 강원도 통천지방의 자그마한 마을에 착하고 총명한 오누이가 부모를 모시고 의좋게 살고 있었다.

그들은 집이 몹시 가난하여 언제나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고 미역을 건져 집안살림에 보태였다.

그러던 어느날 바다로부터 왜적이 쳐들어왔다. 이때 그들의 아버지는 왜적들을 맞받아나가 용감하게 싸우다가 전사하였고 어머니마저 적들에게 붙잡혀 희생되게 되였다.

이렇게 졸지에 의지가지없는 고아가 된 오누이는 하는수없이 지주집머슴으로 들어가게 되였다.

오누이가 머슴살이의 모진 고역속에 몇해를 살아가던 어느해 여름이였다. 그들이 산속으로 나무하러 갔었는데 한손에 지팽이를 짚고 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백발로인이 나타났다. 로인은 수십년간 금강산에서 도를 닦은 사람이였는데 오누이에게 힘과 재주를 부리는 슬기와 용맹을 가르쳐주었다. 하여 오누이는 몇해후에는 산과 바다도 옮겨놓을수 있을 정도로 준비되게 되였다.

어느날 지주는 오누이에게 바다가에 돌로 성을 쌓으라고 하였다. 오누이는 생각끝에 이 기회를 리용하여 바다로 기여드는 왜적들을 막는 돌성을 쌓기로 하였다.

이어 그들은 국도라는 섬으로 향하였다. 거기에 도착한 오누이는 이내 일을 시작하였다. 오빠는 여섯모가 나게 큰 돌기둥을 쪼아내고 동생은 그것을 물으로 날라다 바다가에 세우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그들은 바다로 밀려드는 왜적의 배들을 발견하였다. 오누이는 지체없이 왜적들을 무리로 쓸어버리였다.

이때 바다가에서는 먹장같은 구름이 밀려오고 세찬 비바람과 풍랑이 몰려들어 왜적들과 적들이 탔던 배들은 몽땅 물속에 처박히고말았다. 하지만 적들과 용감하게 싸우던 오누이는 돌아오지 못하였다.

국도라는 섬의 떨어져나간 한쪽모퉁이는 그때 오빠가 헐어 돌기둥을 쪼아낸 곳이고 총석정은 동생이 돌기둥을 날라다 세운것이라고 한다.

* * *

《인권》 소동은 반공화국모략의 산물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무모한 반공화국《인권》광기의 비렬한 모략극이 극도에 달하고있다.

그들은 《북지도층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이니, 《민생을 도외시한 핵과 미싸일개발 우려》니, 《해외로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니 뭐니 하고 떠들어대며 유엔에서 《북인권결의안》을 또다시 조작하였다.

이것은 합법적인 주권국가인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이며 철저히 반공화국모략의 산물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마치도 공화국이 《인권불모지대》인것처럼 락인하고 선전하는것은 눈가리우고 아웅하는격으로서 저들의 북침구실을 마련하자는데 그 본심이 있다.

공화국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이 사회의 주인으로서 인권의 기본징표인 정치적권리를 행사하고있다.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지위에서 주권기관선거를 비롯한 국가정치에 참가하고있으며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이 국가의 정사를 론하고 사회정치활동을 자유롭게 벌리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국가활동의 전과정이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관되여있으며 배움의 권리, 치료받을 권리 등 인간이 향유하여야 할 모든것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하고있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끈질긴 제재와 압력속에서도 지난해 전대미문의 대재앙이 휩쓸었던 두만강지구의 북변천리에 사회주의 새 거리, 새 마을들이 단 2개월만에 번듯하게 솟아오르고 인민들이 원래 살던 집보다 더 좋은 집에서 행복한 웃음을 꽃피우고있는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반공화국《인권》나발을 집요하면서도 악착하게 불어대는것은 국제적으로 공화국의 영상을 흐리게 하고 고립시키며 나아가서 사회주의조선을 타고앉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미국이 《인권》을 내들고 주권국가들에 대한 침략전쟁의 불을 지른 실례는 허다하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인권》소동이 반공화국모략으로 되는 다른 하나의 근거는 실지 인권불모지대인 저들의 추악한 몰골을 감추어보자는데 그 본심이 있다.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돈이 정치참여의 절대적조건으로 되고있으며 돈이 없으면 초보적인 정치적권리도 향유할수 없다.

중국중앙인민방송은 지난해 미국에서 벌어진 대통령선거를 두고 지난 시기 대통령선거경쟁에 든 자금이 20억US$에 달하였다면 2016년 대통령선거에 든 자금은 60억US$를 넘는다고 폭로하였다.

결국 미국에서는 돈있는 소수의 특권계층만이 정치를 좌우지하고 국가정책이 그들의 리익만을 대변하고있으며 절대다수의 무권리하고 빈곤한 평민들은 초보적인 정치적권리조차 행사하지 못하고있다.

뿐만아니라 극심한 인종차별과 각종 범죄가 판을 치고 세인을 경악케 하는 인권침해행위들이 만연하고있는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이 바로 미국이다.

미국에서 유색인들은 범죄의 주요피해자로, 사법당국의 편견의 희생물로 되고있다. 수감자들의 60%이상이 유색인종 및 소수민족들이다. 흑인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의약품실험 등과 같은 비인간적인 행위들이 감행되고있으며 다른 인종들에 대한 경찰들의 인권유린행위가 지속되고있다. 최근년간에 련이어 일어난 흑인들에 대한 백인경찰들의 사살사건이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실례이다.

인종문제해결전망이 얼마나 암담했으면 미국력사상 첫 흑인대통령이였던 오바마까지도 흑인문제는 《미국사회와 력사에 깊숙이 뿌리내린 문제》라고 개탄하였겠는가.

하기에 반공화국《인권결의》가 나온지 얼마 지나지 않아 카나다세계평화연구소는 홈페지에 그 《인권결의》가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부패된 선전작품이며 너무도 서투르게 포장되여있어 거기에 렬거된 인권유린자료들은 조선보다는 오히려 미국, 영국을 포함한 공동발기국들에 해당된다고 비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북인권》이니 뭐니 하고 비린청을 돋구고있는것이야말로 인권에 대한 우롱이고 모독이 아닐수 없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아무리 《인권》소동에 매달려도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전진하고 승리하는 공화국의 전진을 멈춰세울수 없다. 오히려 저들의 수치스러운 파멸을 앞당길뿐이다.

본사기자 전룡진

미국식인권

녀성천시, 녀성학대의 란무장

민족반역을 일삼아온 박근혜역도의 죄악을 다 렬거하자면 끝이 없지만 그중에서 빼놓을수 없는것이 바로 역도가 녀성의 탈을 쓰고 온 남조선을 세계최악의 녀성천시, 녀성학대의 란무장으로 만든것이다.

명색이 그래도 녀성이라고 박근혜역도는 지난 《대통령》선거당시 자기를 《준비된 녀성대통령》으로 광고하며 당선되면 《녀성정책을 핵심》으로 삼겠다고 찰떡같이 공약하였었다. 하지만 배속에서부터 타고난 역도의 삐뚤어지고 천박한 녀성관이 《대통령》감투를 쓴다고해서 달라질것은 없었다.

박근혜역도는 집권해서부터 나약함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녀성이라는 말을 꺼내기 제일 싫어하였으며 녀성들을 만나 녀성인권문제를 따로 론의한적은 한번도 없었다. 역도가 그 무슨 《녀성교원시간선택제》, 《미래 녀성인재 10만 양성계획》을 비롯하여 각종 녀성관련정책들을 내놓았다고 하지만 그것은 빈종이장에 불과한것이다. 이로부터 남조선 각계는 역도의 녀성관련정책들을 《생색내기 빈 공약》이라고 한결같이 야유하며 비난하였다.

녀성이라면 누구나 어머니가 되고싶어하며 귀여운 자식을 낳아 남부럽지 않게 내세우려고 한다. 그러나 아이도 낳아보지 못한 악녀는 녀성들의 이 신성한 권리마저 무참히 유린하였다. 지금 남조선에서 녀성들의 해산률감소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제기되고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녀성들의 해산률은 세계적으로 제일 낮은 수준이며 그것은 해마다 계속 줄어들고있다고 한다. 게다가 남조선에서 날로 더욱 만연되는것은 녀성천시풍조이다.

권리보장을 위해 투쟁하는 남조선녀성들

자료에 의하면 남조선에서는 녀성취업률이 해마다 낮아지고있으며 그나마 녀성로동자의 80%이상이 로동조건이 매우 한심한 시간제 일자리에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있는 형편이다. 그중 30%는 단시간로동자라는 리유로 보험금, 퇴직금 등도 받을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놓여있을뿐아니라 녀성로동자들은 남성로동자들과 꼭같은 일을 하고도 2중3중의 차별을 받고있다. 남조선에서 남녀임금격차는 근 40%에 달하며 기업주들은 로동력상실을 막는다고 하면서 가정을 이룬 녀성로동자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며 아이를 낳게 강요하고있다. 이로 하여 수많은 녀성들이 하는수없이 직업을 포기하고있다.

해고의 첫째가는 대상도 녀성들이다. 매해 4 000~5 000명의 녀성로동자들이 산전산후로 직장에서 쫓겨나 실업자로 되고있으며 결혼, 임신, 해산 등을 리유로 일자리를 빼앗긴 녀성은 무려 수백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뿐이 아니다.

남조선에서는 녀성들이 직장들에서 성폭행을 당하고있는데 대부분은 생산현장과 회사들에서 술시중, 신체롱락, 성적모욕 등을 강요당하면서 치욕속에 몸부림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녀성의 지위 세계 최하위》, 《녀성차별의 세계적교실》이라고 개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한것으로 하여 남조선의 많은 녀성들이 가정과 사회앞에 지닌 자기의 신성한 의무를 스스로 포기하고 타락과 범죄의 길에 들어서고있는데 그 범죄건수는 년간 30여만건이나 된다.

언제인가 남조선의 어느 한 녀성은 빚을 갚을길이 없게 되자 일가족 4명을 죽이고 집에 불을 질렀으며 또 다른 녀성은 생활상고통을 못이겨 2살도 안된 어린 아들을 욕조에 빠뜨려 죽이였다고 한다.

제반 사실은 녀성이면서도 녀성들을 한갖 성노리개로, 사회의 부속물로 취급하는 추악한 박근혜역도와 썩어빠진 피쇼통치제도가 있는 한 언제가도 녀성들의 이 불행과 고통이 가셔질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하기에 남조선녀성들은 녀성의 권리와 생존권을 랭혹하게 짓밟으며 자기들에게 참을수 없는 고통을 강요하는 반역《정권》을 반대하여 투쟁에 떨쳐나서고있는것이다.

투쟁으로 녀성천시《정권》, 녀성학대《정권》을 갈아엎을 때 남조선녀성들은 참다운 녀성의 권리를 누릴수 있을것이다.

죄악의 대가는 결산될것이다

1919년 3월 1일 조선민족의 강한 자주정신과 열렬한 애국정신을 보여준 3.1인민봉기가 폭발하였다.

그때로부터 근 한세기가 다 되여오고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 겨레는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일제가 실시하였던 악랄한 폭압정치에 항거하여 거리를 메우며 봉기에 분연히 떨쳐나섰던 인민들의 모습과 그들이 터쳤던 격노한 함성을 쟁쟁히 기억하고있으며 만주와 상해, 연해주, 하와이 등 해외에서도 이 반일애국항쟁에 합세하여 투쟁하던 동포들의 모습을 잊지 않고있다. 더불어 빼앗긴 자기의 강토와 민족의 자주권, 인간의 존엄을 되찾으려는 조선인민의 시위를 무지막지하게 탄압한 일제의 피비린내나는 반인륜적죄악도 영원히 잊지 않고있다.

당시 시위진압에 나선 일제는 조선사람들을 총과 칼로 살륙하는것도 아깝다고 뇌까리며 사람들의 팔다리를 네마리의 소나 말에 매고 채찍으로 내몰아 팔다리를 찢어죽이거나 작두로 목과 팔다리를 잘라놓고 하나하나 나무에 매달아놓는것과 같은 귀축같은 만행을 다 저질렀다. 뿐만아니라 검거한 봉기자들을 앉혀놓고 쇠몽둥이와 갈구리로 뒤통수를 때려 머리뼈를 바스러뜨렸으며 단도로 온몸을 마구 찔러 피범벅을 만들었는가 하면 독립만세를 불렀다고 하여 소년의 입을 칼로 찢어죽이는 만행도 거리낌없이 감행하였다. 당시 일제의 이 야수적인 살륙만행으로 하여 10여만명의 무고한 조선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력사에는 인민들을 탄압한 식민주의자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자료가 수많이 기록되여있지만 일제와 같이 이렇듯 야수적인 방법으로 평화적시위참가자들을 무참히 살륙한 례는 찾아볼수 없다. 물론 이 살륙행위는 군사적강점기간 조선민족앞에 저지른 일제의 과거죄악을 놓고볼 때 일단에 불과하다.

그러나 일제는 3.1인민봉기가 있은 때로부터 한세기가 가까와오고 일제가 패망한지도 7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저들이 저지른 특대형반인륜적범죄에 대하여 사죄, 배상할 대신에 오히려 그 모든것을 전면부정하며 재침열에 들떠 분별없이 날뛰고있다.

최근시기만 보아도 날로 장성강화되는 공화국

본사기자

의 불패의 위용앞에 질겁한 일본은 반공화국적대시정책실현과 총련에 대한 부당한 탄압책동을 강화하고있으며 재침책동에 미쳐날뛰고있다. 원래 공화국에 대한 뿌리깊은 적대감에 물젖을대로 물젖은 일본은 이미 대조선적대시책동의 일환으로 재일동포들의 일본에로의 재입국금지대상의 대폭적인 확대와 공화국에로의 송금금지, 《만경봉-92》호를 비롯한 모든 공화국국적선박의 입항금지 등의 부당한 《단독제재》조치를 취하였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공화국이 자위적인 핵탄두폭발시험을 진행한데 대해 덴겁하여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과 야합하여 국제적인 대조선《제재결의》채택을 고취하였는가 하면 이《제재결의》가 나오자 쾌재를 부르며 이미 실행중이던 《단독제재》를 보다 악랄하게 강화하였다. 뿐만아니라 얼마전에는 우익깡패들을 내몰아 총련중앙회관주변을 포위하고 방송차로 공화국의 자위적핵억제력강화조치를 악의에 차서 걸고들면서 《총련을 일본에서 내쫓겠다.》고 고아대는가 하면 여러명씩 떼를 지어 회관돌입을 시도하는 란동을 부리였다.

일본의 이 무분별한 광증은 재침책동으로 고조를 이루고있다. 이미 일본은 미국을 등에 업고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전세계에로 확대하고 세계의 임의의 지역에서 군사활동을 할수 있게 만든데 기초하여 이제는 어벌이 커져 그것을 제약하고있는 현행헌법들을 뜯어고치려 하고있다. 한편 일본은 《자위대》의 무장장비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미싸일개발과 항공모함형함선건조, 다목적스텔스전투기구입에 열을 올리고있으며 미해병대와 류사한 무력창설을 추진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미국, 남조선과 정보공유합의서를 체결하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정탐행위를 확대강화하며 군사작전능력을 높이는것과 동시에 선제공격을 단행하려고 하고있다.

그것은 최근년간 일본에서 《북조선미싸일기지에 대한 선제공격》을 운운하는가 하면 일본단독의 《적기지타격》론이 공공연히 튀여나오고있는것만 봐도 잘 알수 있다.

지금 과거 조선민족에게 끼친 죄악의 력사를 성근히 반성할 대신 죄악에 죄악을 덧쌓으며 재침의 길로 줄달음치고있는 일본반동들에 대한 온 겨레의 증오심과 복수심은 극도에 달하고있다.

천추만대를 두고서라도 일본의 죄악의 대가를 끝까지 받아내여 쌓이고쌓인 민족의 한을 기어이 풀려는것은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의지이다.

일본의 죄악은 반드시 결산될것이다.

본사기자

일본의 재침책동과 군국주의부활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집단적자위권》행사용인결정을 반대하여 시위투쟁을 벌리는 일본인민들

승마애호가들을 기다린다

오늘 승마운동은 일류급의 문화로, 세계적인 추세로 되고있습니다.

미끈하게 잘 생긴 말을 타고 채찍을 휘두르며 달리는 기쁨을 맛보고싶은분들은 조국을 방문하는 기회에 꼭 미림승마구락부를 찾게 될것입니다.

잔디주로와 토사주로가 펼쳐진 야외승마훈련장에는 조선의 명산 금강산을 방불케 하는 인공산과 인공폭포, 인공못도 있으며 보기 드문 천막휴식장과 야외관람대도 함께 있어 더욱 이채롭습니다.

승마애호가들이 순간에 멋쟁이로 단장되여 나오는 승마봉사소와 함께 승마지식보급실, 피로회복원, 실내승마훈련장 등이 그쯘하게 세워진 미림승마구락부는 총 62만 7 000여㎡나 되는 방대한 부지면적을 차지하고있습니다.

주체102(2013)년 10월에 준공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조국을 방문하는 수많은 해외동포들이 이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상상밖의 쾌감을 맛보았습니다.

녕변철옹성 남문의 봄　　　본사기자 최원철

봄이 왔다. 남쪽으로 안주, 평양과 통하는 중요한 성문이여서 만노문이라고도 불리운 녕변철옹성 남문일대에도 파릇파릇 새싹이 움터난다. 선조들이 외적을 물리친 투쟁이야기가 깃들어있는 철옹성 남문은 오늘도 그날의 사연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주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ㄱ—782131
http://www.naenara.com.kp(조문, 로문) 전자우편(E-mail): flph@star-co.net.kp